

제 I 편

기 본 구 상

제1장 계획의 개요

제2장 지역현황 및 개발여건 분석

제3장 지역발전의 목표와 전략

제1장

계획의 개요

1. 계획수립의 배경과 목적

2. 계획의 성격과 역할

3. 계획의 범위

4. 계획수립의 방법과 체계

1. 계획수립의 배경과 목적

가. 계획수립의 배경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과 연계

- 「국토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12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이 채수립·확정되었으며, 그 하위계획인 도종합계획 역시 이에 연계하여 수정계획을 수립함

■ 시대적 변화, 국정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충남도정의 능동적 대응

- FTA의 확대에 따라 지역산업구조의 혁신이 요구되며 기후변화에 따른 녹색성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또한 세계적 경기침체의 장기화가 전망됨에 따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지역의 산업전략과 경기침체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처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외부의 영향과 의존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도의 발전전략을 마련하고자 함

■ 세종특별자치시 출범과 도청이전 등에 따른 새로운 지역발전구도 설정

- 세종특별자치시 출범과 도청이전에 따른 새로운 지역발전 비전과 전략을 선택하는 한편, 고속철도, 고속도로 등 국가간선망 건설의 파급효과를 지역발전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기능지구 설정을 계기로 지역의 수용성 강화

- 천안과 연기군(세종시), 충북 청원지역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로 결정됨에 따라 거점지구(대전 대덕)와의 기초과학연구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초연구성과를 생산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연계기능을 마련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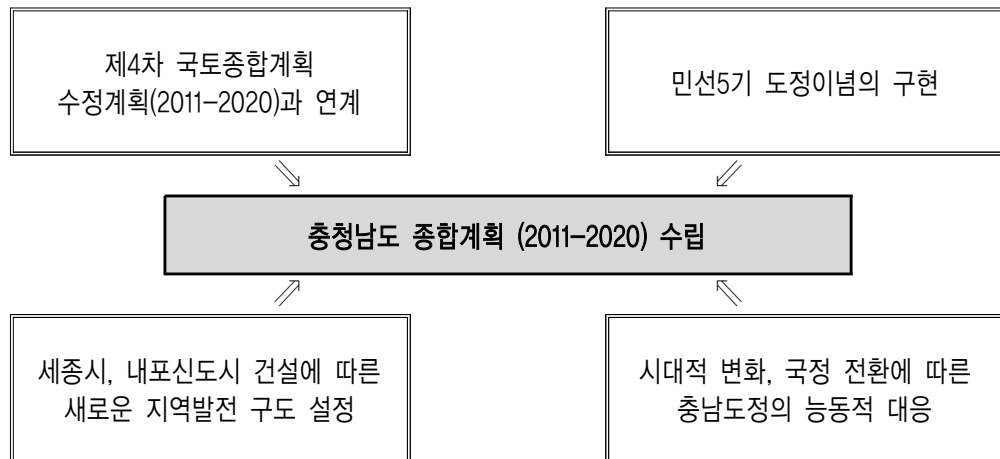
■ 지역 내·외의 여건변화를 지역발전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마련

- 충남지역은 전통적인 농업 중심지역에서 첨단산업 중심지역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대전·충북·경기·전북 등 주변 시·도간의 광역적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 향후 초광역 혁신클러스터 형성, 네트워크형 도시체계의 발달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협력적인 지역개발 구도로의 전환이 필요함

■ 민선 5기의 출범에 따른 새로운 도정이념과 운영전략 수용

- 민선 5기의 출범에 따라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를 비전으로 새로운 도정목표를 이룩할 수 있는 방안의 제시가 요구됨

〈그림 1-1〉 계획수립의 배경



나. 계획수립의 목적

- 도가 보유한 유무형의 인적, 물적 자원과 자산을 효과적으로 이용·개발·보존하기 위하여 장·단기 정책방향과 지침을 설정하고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을 달성함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등 상위계획의 기초와 정책을 충남지역 차원에서 구체화하고 대내외적 여건변화를 지역발전의 기회로 활용함
-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및 내포신도시 건설과 연계하여 지역의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환황해경제권시대의 대응체제를 구축함
- 대한민국의 선진화와 지역균형발전의 선도지역으로서 전략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충남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함

2. 계획의 성격과 역할

가. 계획의 성격

■ 도 단위 최상위 법정계획

- 충남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국토기본법」 제6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시행되는 도단위 최상위 법정계획

■ 상위계획을 구체화한 계획

-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의 골격을 수립하여 지역 차원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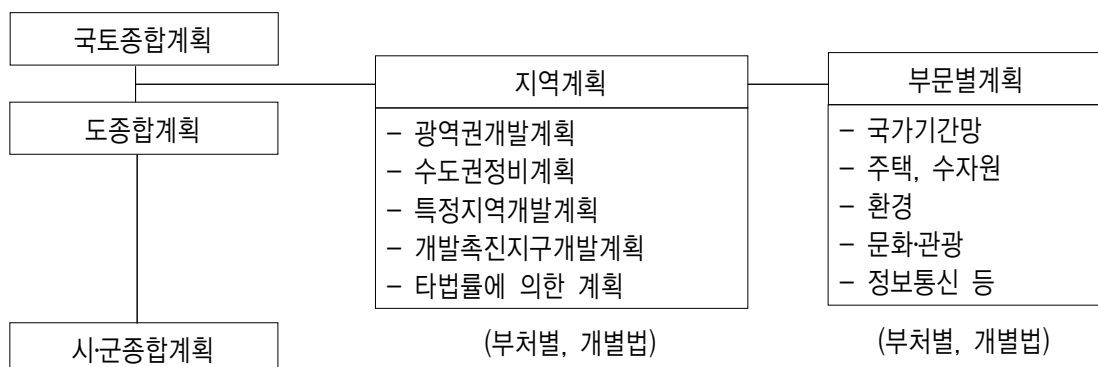
■ 국토종합계획에 부응한 지역·부문별 계획

- 국토종합계획에서 다루지 못한 도차원의 정책과 사업을 포함하여 지역의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부문계획을 담는 계획

■ 하위계획에 대한 지침제공 계획

- 시·군종합계획¹⁾ 등 하위계획에 대한 기본이 되고 민간부문에 대해 개발방향과 투자방향을 제시하고 유도하는 계획

〈그림 1-2〉 「국토기본법」 상 국토계획체계



1) 시·군종합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당해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교통·환경·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문화 분야 등의 발전방향을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수립되는 도시계획으로 정의되어 있음(국토기본법 제6조).

나. 계획의 역할

■ 지역주민에게 지역발전에 대한 미래상 제시

- 도민에게 지역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미래상과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북돋음

■ 도정 및 시·군에 지역발전의 부문별 정책방향과 가이드라인 제공

- 도 단위의 장기적 발전방향, 전략사업을 제시하여 도정과 시·군의 부문별 업무수행에 있어서 기본방향 및 방침을 제공

■ 중앙정부에 사업추진 및 지원요청 근거 제시

- 국가정책의 지역적 실현방안을 구체화하고, 국가정책에 대한 지역적 요구와 수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중앙정부의 지원과 상호협력을 강화

■ 민간부문 및 기업에 지역개발 정보 제공 및 투자방향 제시

-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정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방침과 시책 등 정보를 제공

3. 계획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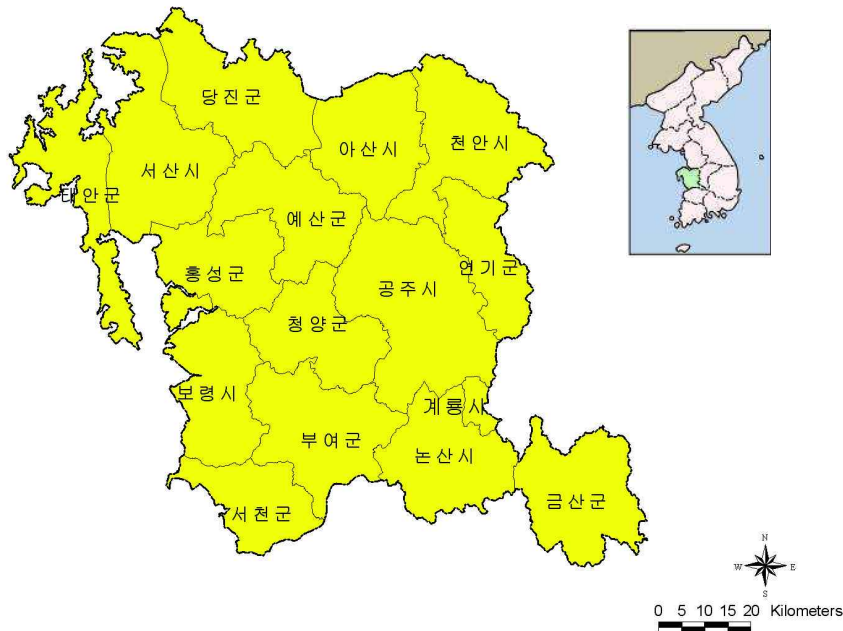
■ 시간적 범위

- 계획기간 : 2011~2020년(10년간)
- 기준년도 : 2010년(자료활용 기준년도 2009년 12월)

■ 공간적 범위

- 계획구역 : 충청남도 전역(16개 시·군, 총면적: 8,629km²)
 - －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7개 시)
 - － 금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9개 군)

〈그림 1-3〉 계획의 공간적 범위



■ 내용적 범위

- 지역여건과 발전 잠재력 분석, 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 전략별 추진계획, 시·군별 발전방향, 계획의 집행과 관리를 포함

※ 도종합계획의 내용

① 『국토기본법』 제1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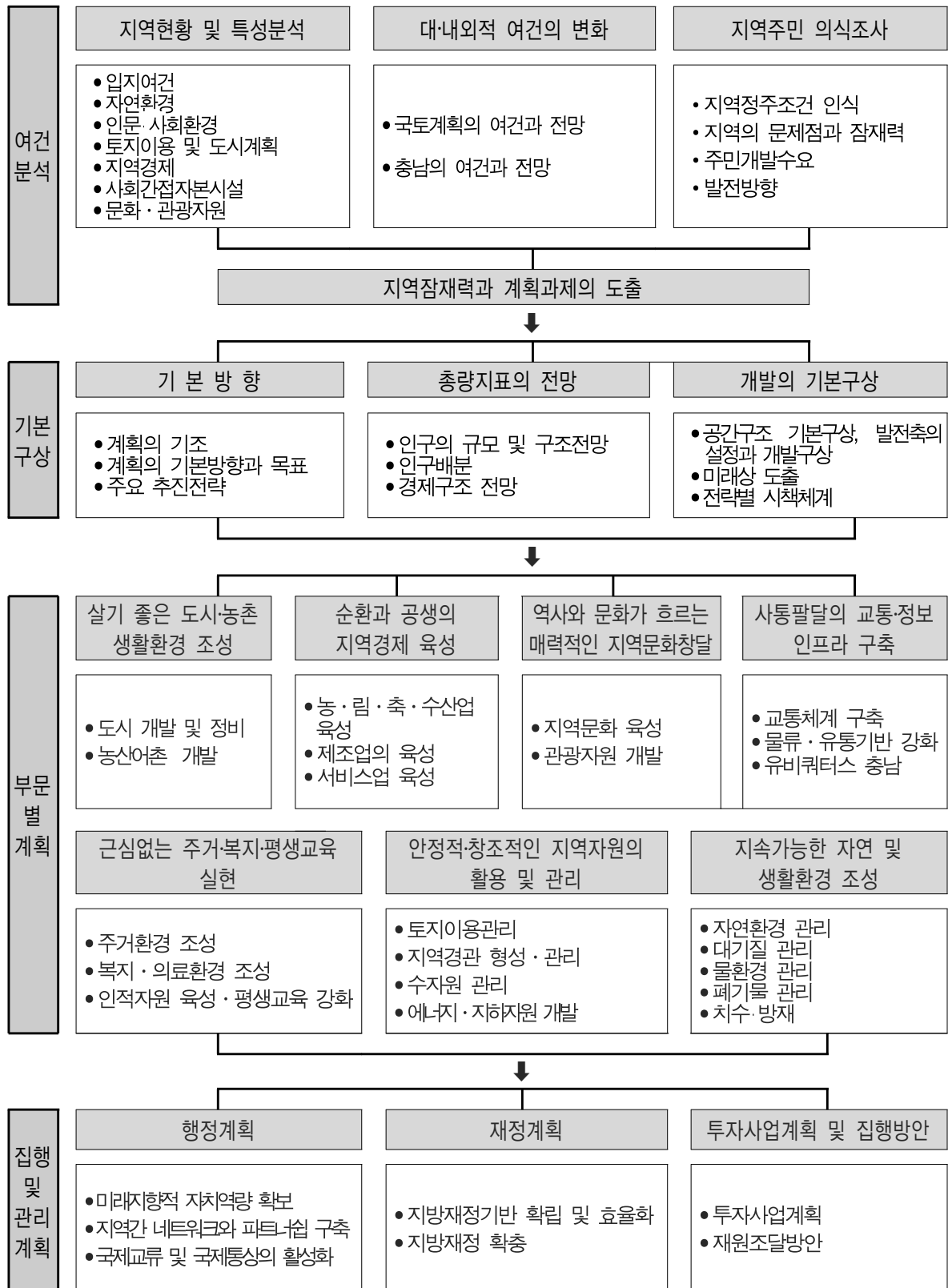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역현황·특성의 분석 및 대내외적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역발전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역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안으로 기능분담 방향에 관한 사항
4. 교통, 물류, 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지역내 자원 및 환경의 개발과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6. 토지의 용도별 이용 및 계획적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1. 주택, 상하수도, 공원, 노약자 편의시설 등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문화·관광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재해의 방지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산업의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자원조달방안 등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단계별 주요과업 내용〉



4. 계획수립의 방법과 체계

가. 계획수립의 방법

- 「충청남도 종합계획 (2011-2020)」은 혁신적인 접근방법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의사소통적·참여적인 계획과정을 통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 그리고 실현수단의 마련을 중시하여 수립함
- 계획수립 참여주체
 - 도와 각 시·군의 공무원, 도민, 「충청남도 종합계획(2011-2020)」추진 도연구자문단, 전문가,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상향적(bottom-up) 과정을 통한 계획수립

〈그림 1-4〉 계획수립 참여주체와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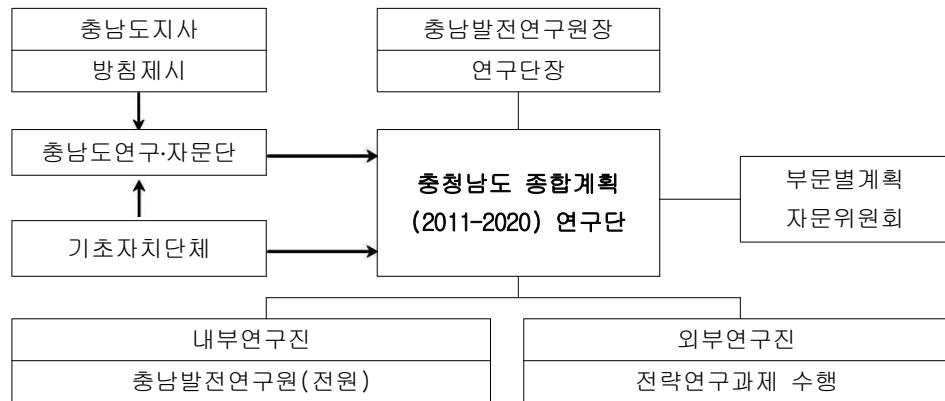


나. 계획수립체계

- 충청남도 종합계획(2011-2020) 연구단
 - 단 장 : 충남발전연구원장
 - 총괄팀 :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진
 - 연구단원: 충남발전연구원 및 분야별 전문가
- 「충청남도 종합계획(2011-2020) 연구·자문단」

- 구성 : 9개 분과 75명(도 실국장·과장·담당, 전문교수, 시·군)
- 운영 : 연구자문단 회의 및 분야별 토론회 참석하여 아이디어 제시

〈그림 1-5〉 계획수립체계



다. 추진경위

■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2000-2020)

- 2001. 8 건설교통부 승인

■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2008-2020)

- 2005.11~2007.4 계획수립
- 2007.12 건설교통부 승인

■ 충청남도 종합계획(2011-2020)

- 2010. 4.15 착수보고회 개최 및 연구진 워크숍
- 2010. 4. 시·군별, 분야별 정책방향설정을 위한 의견수렴
- 2010. 4~5 시·군별 「핵심·전략사업」 1차 취합(16개 시·군)
- 2010. 5.27 계획수립을 위한 기본구상(안) 워크숍
- 2010. 6.21 부문별연구진 워크숍
- 2010. 7.23 분야별 관련부서 워크숍(충남도, 전문가, 연구단)

- 2010. 7~9 충청남도 도민의식 및 수요조사(2개월)
- 2010. 8 충청남도종합계획(2011-2020) 구상(안) 작성
- 2010.12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2011-2020), 세종특별자치시설치에관한법률 제정 및 고시
- 2011. 2 충청남도종합계획(2011-2020) 기본구상(안) 재작성
- 2011. 3 시·군별 「핵심·전략사업」 2차취합(16개 시·군)
- 2011. 4 도민의견수렴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1개월)
- 2011. 5. 4 시·군 발전방안 워크숍(도 관계관, 16개 시·군)
- 2011. 7. 6 중간보고회 개최(자문위원, 도 관계관, 16개 시·군)
- 2011. 7.26 전략환경평가위원회 자문회의 개최
- 2011. 8.23 충청남도종합계획(2011-2020) 공청회 개최
- 2011. 8.26 충청남도 의회(행정자치위원회) 보고
- 2011. 9. 1 충청남도 의회 보고
- 2011. 9.5~9 2차 전략환경평가위원회 자문
- 2011. 10.26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1. 12. .

제 2 장

지역현황 및 개발여건 분석

1. 지역현황 및 특성 분석

2. 관련계획의 검토와 평가

3. 대내외적 여건변화 분석

4. 지역주민 의식조사

5. 지역의 발전여건 분석 : SWOT 분석

1. 지역현황 및 특성 분석

가. 입지여건

■ 대외적 입지여건

- 환황해권 중심에 위치한 요충지역
 - 충남은 중국의 관문항인 대련항·청도항과 최단거리에 입지하고 있어 높은 교류잠재력을 보유
 - 해양과 내륙을 연계시킬 수 있는 항만개발 적지를 다수 보유하여 동북아 교류거점 구축이 용이

〈그림 1-6〉 동북아에서 차지하는 충청남도의 위상



■ 대내적 입지여건

- 국토의 중심부이자 교통의 요충지
 -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호남을 연결하면서 수도권의 압출여력을 흡수하여 비수도권으로 확산시키는 역할 수행 가능
 - 고속도로, 철도 등이 충남지역을 동서·남북으로 통과하거나 계획되어 있어 지역내 도로망과 연계체계 구축이 용이

〈표 1-1〉 충청남도의 경위도상 위치

구 분	지 명	극 점	연장거리
동 단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	북위 36° 01' 47" 동경 127° 38' 31"	동서간 187.7km
서 단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북위 36° 36' 37" 동경 125° 32' 21"	
남 단	금산군 남일면 신동리	북위 35° 58' 30" 동경 127° 29' 15"	남북간 120.8km
북 단	당진군 석문면 난지도리	북위 37° 03' 44" 동경 126° 25' 46"	

자료: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2010.

나. 자연환경

■ 지형·지세

- 충남지역은 전체적으로 저지대형 지형으로 차령산맥이 본 지역의 중앙 부를 북동쪽에서 서남향방향으로 가로질러서 서북부와 동남부로 분리하고 있음
- 충남지역 전체면적의 65%가 표고 100m 이하의 평지이고, 평균표고는 전국 평균 482m보다 훨씬 낮은 100m로서 전국에서 가장 낮음

〈표 1-2〉 표고별 면적분포

구 분	면적(km ²)	구성비(%)
계	8,600.5	100.0
100m 이하	5,607.6	65.2
100~200m	1,664.6	19.3
200~500m	1,279.0	14.9
500m 이상	51.3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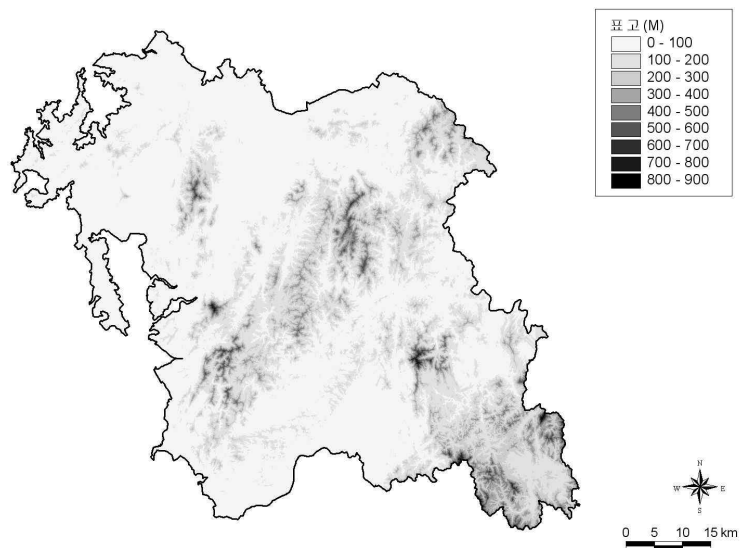
주: 1/25,000 지형도에서 Grid(20×20m) 단위로 구적

- 경사도 또한 5도 이하로 완만한 지역이 전체면적의 43.8%, 15도 이상의 경사지역은 전체 면적의 30.0%를 차지하고 있음
 - 중부 내륙지역과 남동부 산악지역은 비교적 경사도가 높으나 나머지 지역은 경사가 낮은 평지 또는 구릉지를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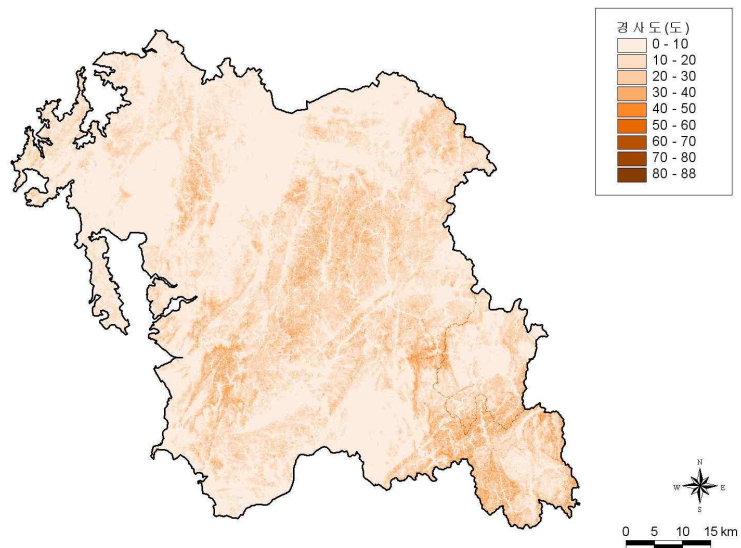
〈표 1-3〉 경사별 면적분포

구 분	면적(km ²)	구성비(%)
계	8,600.4	100.0
5도 이하	3,768.8	43.8
5~10도	1,138.3	13.2
10~15도	1,118.4	13.0
15~20도	973.5	11.3
20~25도	738.5	8.6
25도 이상	863.0	10.1

〈그림 1-7〉 표고분석도



〈그림 1-8〉 경사분석도



■ 해안 및 하천

- 충청남도의 해안선은 리아스식 해안(rias coast)이며, 도서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침수해안의 특색을 지니고 있음. 충청남도의 서북단에 돌출해 있는 태안반도가 도내에서 가장 큰 반도이며, 태안반도를 중심으로 하여 동북쪽에는 아산만과 가로림만이 있고, 동남쪽에는 천수만과 비인만 등이 있음
- 충청남도의 주요 도서로는 안면도·원산도·난지도·삽시도·가의도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3번째로 많은 255개의 도서가 있음

〈표 1-4〉 해안선 및 도서현황

(단위: km, 개소, 인)

구 분	해안선(도서 포함)	도서현황			
		계	유인도	무인도	인 구
보령시	251.9	76	16	60	3,574
아산시	8.0	-	-	-	-
서산시	-	27	4	23	392
서천군	84.7	14	1	13	135
홍성군	22.9	11	1	10	71
태안군	468.9	119	9	110	10,788
당진군	96.4	8	3	5	368
소 계	932.8	255	34	221	15,3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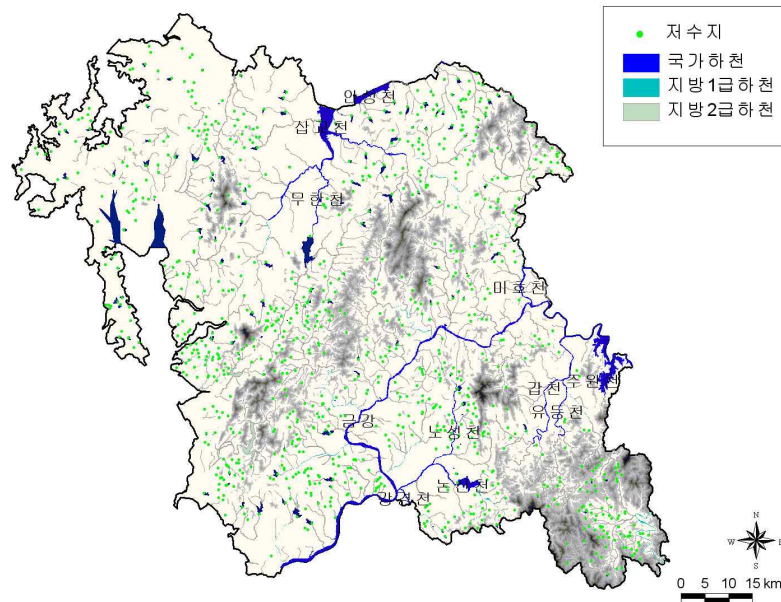
자료: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2010.

- 충청남도의 대표적 하천은 금강·안성천·삽교천 등이며, 금강은 우리나라 3대 하천 중 하나이고 안성천·삽교천은 10대 하천에 포함됨. 본 지역의 하천수계는 차령산맥을 사이에 두고 동남부의 금강수계와 북서부의 삽교천 수계로 크게 양분됨
-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수분리 뜯봉샘에서 발원한 총길이 395.9km의 금강은 노령산맥과 차령산맥 사이에서 신탄진에 이르러 갑천·유등천·대전천 등 여러 소지류들을 합류시켜 곡류하고 있으나, 부여부터는 커다란 강폭을 나타내며 대체로 넓고 평탄한 충적평야를 지나 서해로 유입되고 있음

〈표 1-5〉 충청남도의 주요하천

하천명	유역면적(km ²)	유로연장(km)	발원지
금 강	9,915	395.9	전북 장수군 장수읍 수분리
안성천	1,659	66.4	경기 안성군 삼죽면 옥사봉
삽교천	1,668	58.6	충남 홍성군 장곡면 오서산

〈그림 1-9〉 하천 및 수계도



다. 인문환경

■ 행정구역

- 충청남도의 총면적은 2009년 현재 8,629.2km²로 국토 전체면적(100,208km²)의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상 7개 시와 9개 군으로 구성되어 있음. 지역내 시·군의 평균면적은 539.3km²이며, 이 가운데 공주시가 940.4km²(10.9%)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계룡시가 60.8km²(0.7%)로 가장 작은 관할구역을 보유하고 있음

■ 총인구규모 및 시·군별 인구분포

- 충청남도의 총인구는 2009년 현재 2,075,249인으로 전국(50,643,781인)의 4.1%로 전국면적 대비비율(8.6%)에 비해 절반가량의 수준을 나

타내고 있음

- 충남의 인구는 2005년 1,982천명에서 2009년 현재 2,075천명으로 연평균 1.17%씩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인구 대비 충남의 인구비중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약 4%대로 유지되고 있음

〈표 1-6〉 전국대비 충남인구비중 추이(2000~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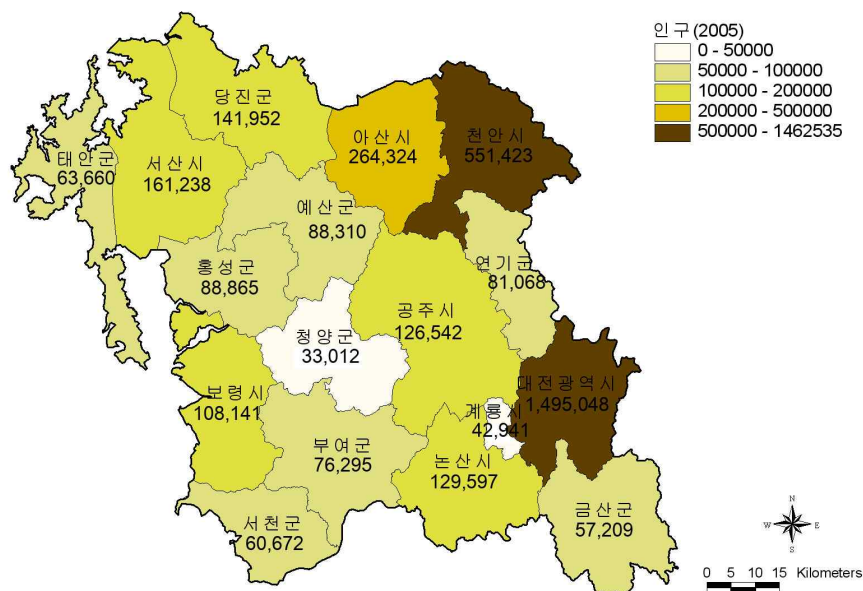
(단위: 천인, %)

구 분	2000년	2005년	2009년	연평균 증가율(%)	
				'00-'05	'05-'09
전국인구	47,977	49,268	50,644	0.54	0.70
충남인구 (전국대비비중)	1,930 (4.0)	1,982 (4.0)	2,075 (4.1)	0.54	1.17

자료: 국가통계포털, 전국주민등록인구통계, 해당년도.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해당년도.

- 시·군별 인구는 2009년 현재 천안시(26.6%), 아산시(12.7%), 서산시(7.8%) 순으로 많으며, 가장 인구비중이 낮은 지역은 계룡시와 청양군으로 각각 충청남도 전체인구의 2.1%, 1.6%를 차지

〈그림 1-10〉 시군별 인구분포 현황(2009)



■ 인구변화추이

- 충청남도의 인구는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는 연평균 0.54% 증가하였으나, 2005년부터 2009년 사이에는 연평균 1.17% 증가하였음
- 2000년 이후 천안시와 아산시, 서산시, 계룡시, 당진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음. 아산시의 경우 2000년 이후 연평균 4.7% 증가하여 2009년 인구규모가 2000년 대비 1.3배 이상 성장한 반면, 청양군과 서천군 등은 동 기간 동안 각각 연평균 2.1%, 2.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7〉 시군별 인구분포 현황(2000~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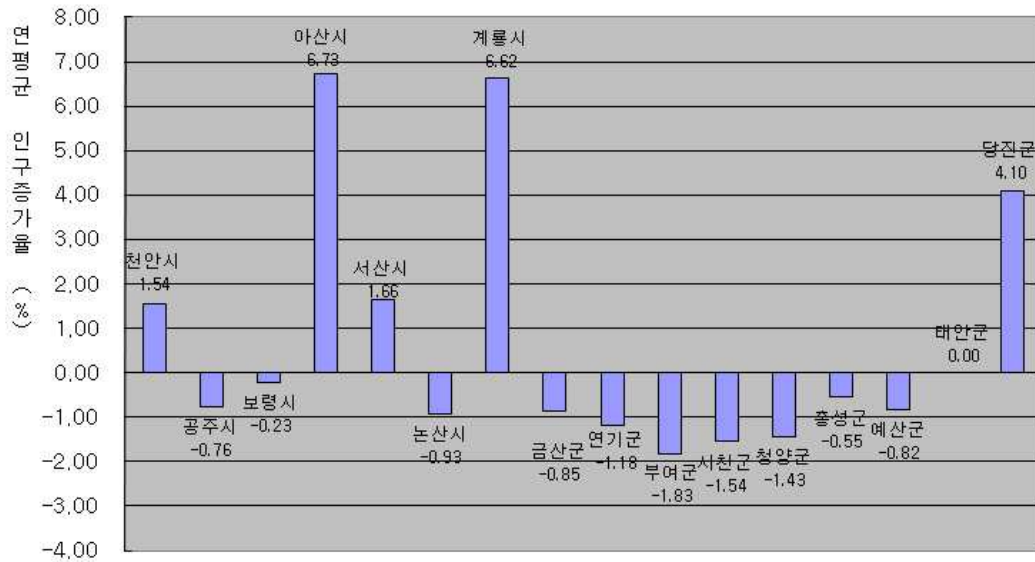
(단위: 천인, %)

구 분	2000년	2005년	2009년	연평균 증가율		
				'00-'05	'05-'09	'00-'09
충남 계	1,930(100.0)	1,982(100.0)	2,075(100.0)	0.54	1.17	0.83
천안시	425(22.0)	519(26.2)	551(26.6)	4.42	1.54	3.29
공주시	136(7.0)	131(6.6)	127(6.1)	-0.74	-0.76	-0.74
보령시	119(6.2)	109(5.5)	108(5.2)	-1.68	-0.23	-1.03
아산시	186(9.6)	208(10.5)	264(12.7)	2.37	6.73	4.66
서산시	150(7.8)	151(7.6)	161(7.8)	0.13	1.66	0.81
논산시	143(7.4)	135(6.8)	130(6.3)	-1.12	-0.93	-1.01
계룡시	28(1.5)	34(1.7)	43(2.1)	4.29	6.62	5.95
금산군	65(3.4)	59(3.0)	57(2.7)	-1.85	-0.85	-1.37
연기군	81(4.2)	85(4.3)	81(3.9)	0.99	-1.18	0.00
부여군	93(4.8)	82(4.1)	76(3.7)	-2.37	-1.83	-2.03
서천군	75(3.9)	65(3.3)	61(2.9)	-2.67	-1.54	-2.07
청양군	41(2.1)	35(1.8)	33(1.6)	-2.93	-1.43	-2.17
홍성군	95(4.9)	91(4.6)	89(4.3)	-0.84	-0.55	-0.70
예산군	101(5.2)	91(4.6)	88(4.2)	-1.98	-0.82	-1.43
태안군	69(3.6)	64(3.2)	64(3.1)	-1.45	0.00	-0.81
당진군	123(6.4)	122(6.2)	142(6.8)	-0.16	4.10	1.72

주: ()의 수치는 충남인구 대비 비중임

자료: 충청남도, 주민등록 인구통계 보고서, 해당년도.

〈그림 1-11〉 시·군별 인구성장률(2005~2009)



■ 도시인구

- 충청남도의 도시인구는 2009년 현재 2,075천인으로 2000년 이후 약 145천명이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0.8%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충남의 도시화율은 2000년 56.2%에서 2009년 63.6%로 증가하였으나 2009년 전국 도시화율(90.8%)에 비해 낮은 편임

〈표 1-8〉 도시인구 변화추이(1995~2009)

구 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09년	연평균 증가율		
					'95~'00	'00~'05	'05~'09
충남 전체(천인)	1,855	1,930	1,982	2,075	0.81	0.54	1.17
도시인구(천인)*	970	1,085	1,198	1,320	2.37	2.08	2.55
농촌인구(천인)	885	845	784	775	-0.90	-1.44	-0.29*
충남 도시화율(%)	52.3	56.2	60.4	63.6	-	-	-

주: 1. 도시인구는 동부와 읍부의 합으로, 농촌인구는 면부의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함.
 2. *아산시 배방면이 배방읍(2009. 5. 1)으로 승격되어 농촌인구는 감소됨
 자료: 충청남도, 주민등록 인구통계 보고서, 해당년도.

■ 인구구조

- 향후 국가 및 지역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와 노령화인구의 증가를 들 수 있음. 지역의 거주인구가 감소하고 평균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노령인구의 비중이 커지게 되고, 사회적 생산잠재력과 생산성은 떨어지게 되며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게 됨. 사회적인 측면에서 노령인구에 대한 대책이 지역개발에 있어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충청남도의 인구구조(2009년)를 보면, 15세미만 인구는 16.8%로 전국의 16.6%와 비슷한 반면에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는 14.8%로 전국의 10.6%를 훨씬 상회하고 있음

〈표 1-9〉 연령별 인구구조 변화(2000~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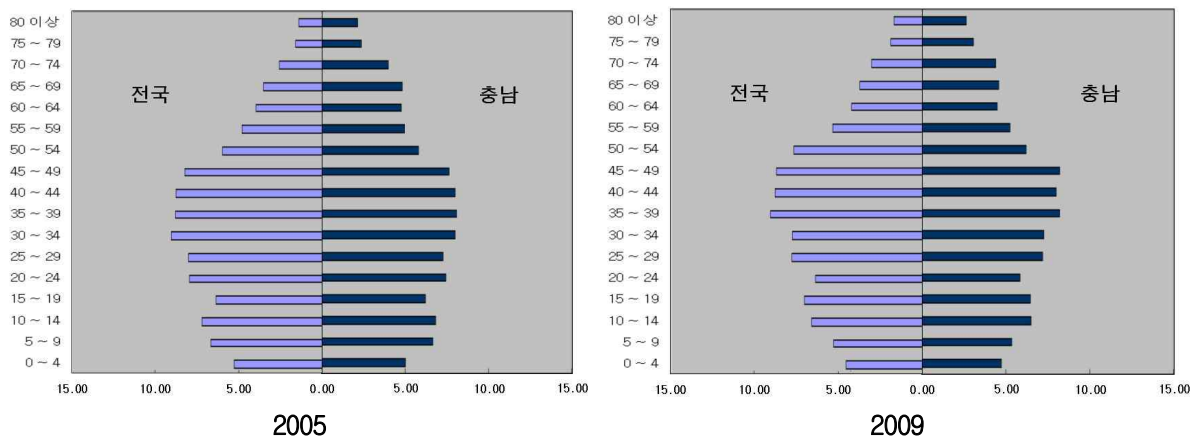
(단위: 인, %)

연령 ¹⁾	2000년		2005년		2009년	
	전국	충남	전국	충남	전국	충남
계	47,732,558 (100.0)	1,921,604 (100.0)	48,782,274 (100.0)	1,962,646 (100.0)	49,773,145 (100.0)	2,037,582 (100.0)
15세 미만	9,958,802 (20.9)	381,468 (19.9)	9,257,908 (19.0)	363,131 (18.5)	8,248,987 (16.6)	341,858 (16.8)
15~64세	34,418,140 (72.1)	1,325,077 (68.9)	35,199,778 (72.1)	1,337,715 (68.2)	36,256,450 (72.8)	1,394,476 (68.4)
65세 이상 ²⁾	3,355,616 (7.0)	215,059 (11.2)	4,324,588 (8.9)	261,800 (13.3)	5,267,708 (10.6)	301,248 (14.8)

주: 연령별 인구는 외국인수를 제외한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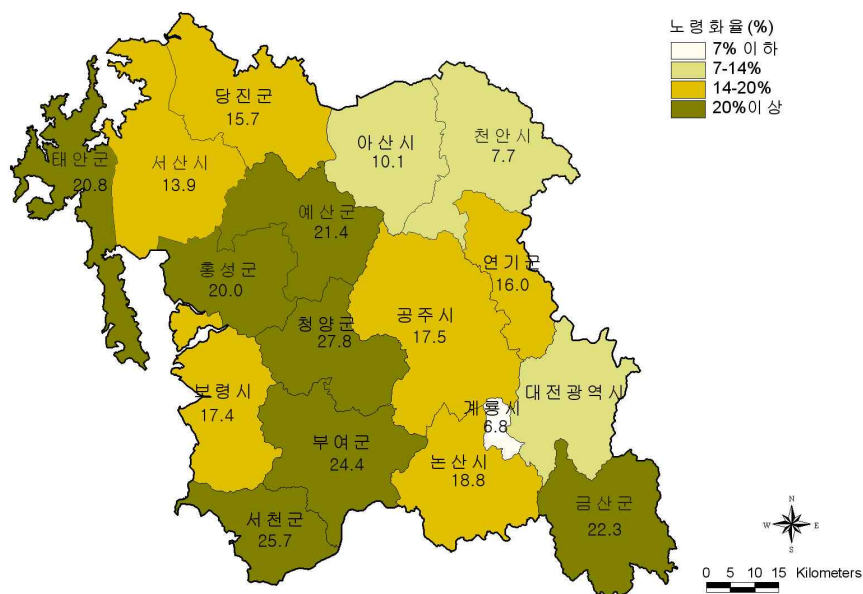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전국주민등록인구통계, 해당년도.

〈그림 1-12〉 전국대비 충남의 연령별 인구 피라미드



- 2009년 현재 도내 시·군별 노령화 현황을 보면, 청양군, 서천군, 부여군, 금산군, 예산군, 태안군은 노령인구 비율이 각각 27.8%, 25.7%, 24.4%, 22.3%, 21.4%, 20.8%에 달하여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연기군, 홍성군, 당진군 등 6개 시·군의 노령인구비율은 15%~20%에 달하여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음

〈그림 1-13〉 시군별 노령화 현황(2009)



■ 인구이동

- 2005~2009년간 충남지역과 여타 지역간의 인구이동을 보면, 충남은 전입 144,393명, 전출 135,836명으로 총 8,557명의 인구유입을 보여 2000~2005년까지의 인구유출지역에서 인구유입지역으로 전환됨
- 2000~2005년간 충남지역에서 유출되는 인구의 지역분포를 보면, 총 유출인구의 26%가 광역충청권 내에서 이동하였으며, 광역수도권으로의 유출비중은 2000~2005년간 55.5%에서 2005~2009년에는 55.3%로 약간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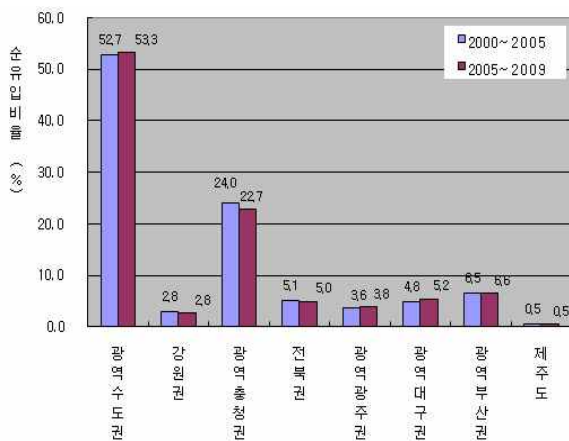
〈표 I -10〉 충남지역 인구이동패턴(지역별 추이)

(단위: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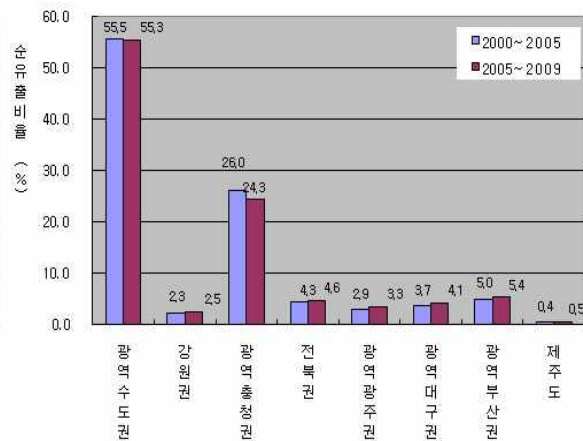
구분	2000~2005년			2005~2009년		
	전입	전출	순이동	전입	전출	순이동
충남 계	133,062	135,186	-2,124	144,393	135,836	8,557
광역수도권	70,083	75,023	-4,940	77,025	75,102	1,923
강원권	3,749	3,092	657	3,987	3,397	590
광역충청권	31,925	35,100	-3,175	32,846	33,050	-204
전북권	6,766	5,807	959	7,176	6,214	962
광역광주권	4,853	3,953	900	5,513	4,497	1,017
광역대구권	6,344	4,938	1,406	7,580	5,614	1,966
광역부산권	8,695	6,706	1,989	9,535	7,339	2,196
제주도	649	568	81	733	624	109

주: 광역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강원권(강원도), 광역충청권(대전, 충남, 충북 중 충남은 제외), 전북권(전북), 광역광주권(광주, 전남), 광역대구권(대구, 경북), 광역부산권(부산, 울산, 경남), 제주도
 자료: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해당년도.

〈그림 I -14〉 충남지역 인구이동(유입)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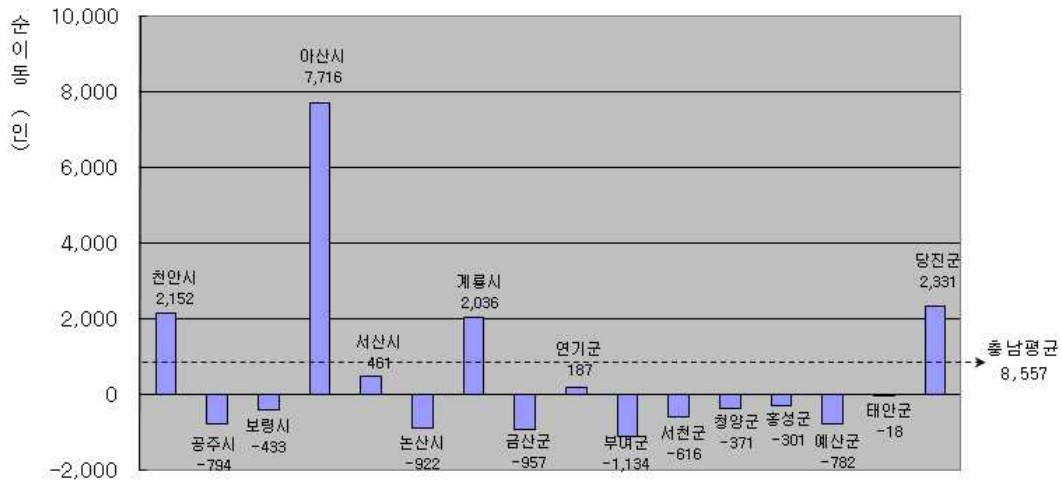


〈그림 I -15〉 충남지역 인구이동(유출)비중



- 시·군별 인구이동패턴을 보면, 2005~2009년 사이에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계룡시, 연기군, 당진군은 인구이동으로 인한 순증가가 이루어진 반면, 나머지 지역은 인구의 순유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림 1-16〉 지역내 시·군별 순인구 이동패턴(2005~2009)



자료: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해당년도.

라. 토지이용

■ 지목별 토지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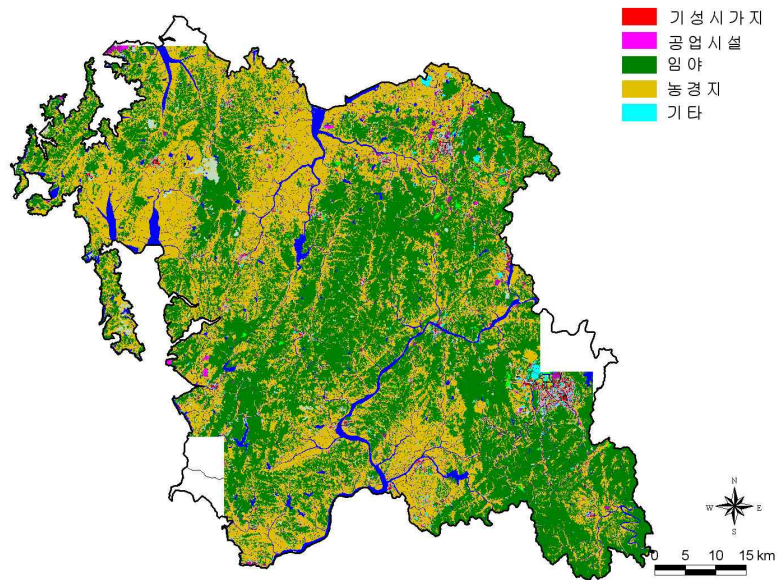
- 충남지역의 2009년 현재 지목별 토지이용실태를 보면, 도시용 토지가 전체면적의 7.2%, 농업용 토지 31.7%, 임야 51.5%, 기타 9.6%의 순으로 나타남
- 토지이용실태를 전국과 비교하면, 농업용 토지와 도시용 토지이용 면적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임야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농업 및 도시개발 부문의 잠재력이 높음을 보여줌

〈표 1-11〉 전국과 충남의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2009)

(단위: km ² , %)					
구 분	총면적	도시용 토지	농업용 토지	임 야	기 타
전국	99,897.4 (100.0)	6,802.9 (6.8)	20,844.6 (20.9)	64,472.0 (64.5)	7,778.0 (7.8)
충남	8,629.2 (100.0)	619.7 (7.2)	2,731.9 (31.7)	4,447.6 (51.5)	830.0 (9.6)

자료: 국토해양부, 2009 도시계획현황, 2010.

〈그림 1-17〉 토지이용 현황도



■ 도시지역의 용도지역

- 충남지역의 도시지역 면적은 총 1,068.36km²로 충남 전체면적의 12.4%이며 전국의 17.4%에 비하여 낮은 편임. 충남지역의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분포를 보면, 녹지지역이 6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거지역 13.7%, 미지정지역 10.6%, 공업지역 10.0%, 상업지역 1.9%의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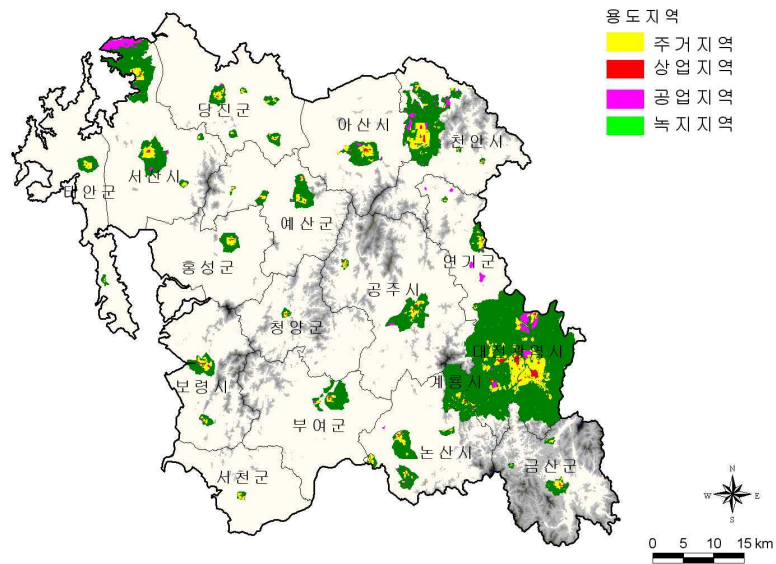
〈표 1-12〉 도시지역의 용도지역 현황(2009)

(단위: km², %)

구분	도시지역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지역
전국	17,420.23 (100.0)	2,402.37 (13.8)	299.47 (1.7)	963.94 (5.5)	12,621.06 (72.5)	1,133.38 (6.5)
충남	1,068.36 (100.0)	146.79 (13.7)	20.11 (1.9)	106.56 (10.0)	681.63 (63.8)	113.28 (10.6)

자료: 국토해양부, 2009 도시계획현황, 2010.

〈그림 1-18〉 도시지역내 용도지역 현황도



■ 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

- 충남지역의 비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분포를 보면, 농림지역이 52.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리지역 38.2%, 자연환경보전지역 9.3%의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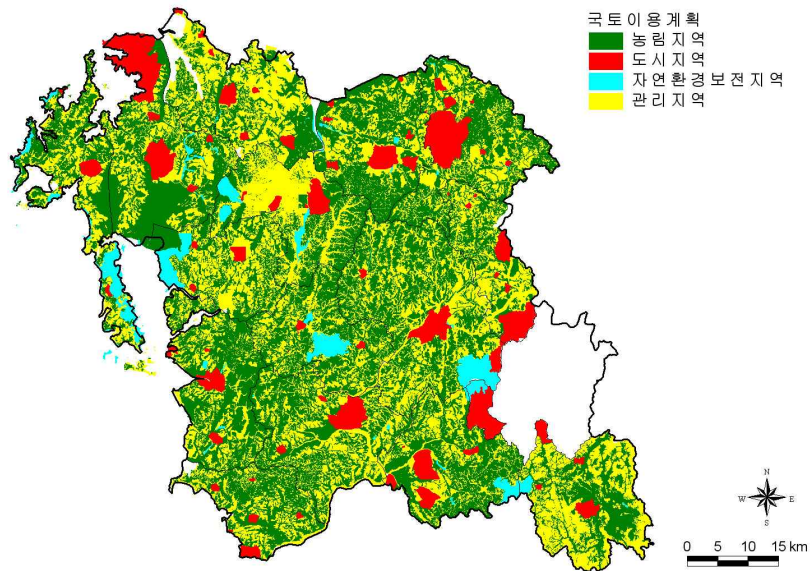
〈표 1-13〉 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 현황(2009)

(단위: km², %)

구분	비도시지역			
	계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전국	88,173.77 (100.00)	25,283.39 (28.7)	51,019.12 (57.9)	11,871.26 (13.5)
충남	8,074.85 (100.00)	3,085.92 (38.2)	4,239.25 (52.5)	749.68 (9.3)

자료: 건설교통부, 2009 도시계획현황, 2010.

〈그림 1-19〉 비도시지역내 용도지역 현황도



마. 생활환경

■ 시·군 생활권의 구조와 특성

- 주민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지역주민의 일상적인 물품 및 서비스 구매 형태를 보면, 고차(higher-order)의 상업·서비스 기능일수록 대전광역시, 천안시의 영향권이 확대되고 있음
- 일용품의 구매는 90.21%가 해당시·군내에서 이루어지며, 5.14%가 타 시·도내에서 구매하고 있음
 - 시·군내에서 일용품 구입은 당진군이 99.0%로 가장 높고, 천안시, 서산시 순이며, 연기군이 66.67%로 가장 낮는데, 이는 주변에 대전시, 청주시, 천안시 등 대도시와 인접하고 있기 때문임
- 가전제품은 78.99%가 해당시·군내에서 구매가 되며, 12.49%가 타 시·도내에서 이루어짐
 - 가전제품의 시·군내 구입은 천안시가 98.76%로 가장 높고, 서산시, 당진군 순이며, 청양군이 16.0%로 가장 낮는데, 생활권이 칠갑산으로 인해 분리되어 있으며, 인구수도 적어 공산품판매의 상권이 형성되지 못하기 때문임
- 일반병원 이용권으로 해당시·군내 이용은 78.03%이며, 타 시·도를 이

용하는 비율은 11.44%임

- 해당 시·군내에서의 일반병원 이용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98.98%의 천안시이며, 서천군, 보령시 순이고, 가장 적은 지자체는 31.25%로 계룡시임
- 종합병원 이용권으로 시·군내 이용은 41.72%이며, 타 시·도를 이용하는 비율은 37.48%임
- 종합병원은 상위서비스로 해당 시·군내 이용이 현저히 낮는데, 천안시가 93.31%로 가장 높고, 보령시와 서산시가 그 뒤를 잇고 있으며, 계룡시, 청양군, 태안군 순으로 낮음

〈표 1-14〉 상품 및 서비스 유형별 시·군 점유율 분석(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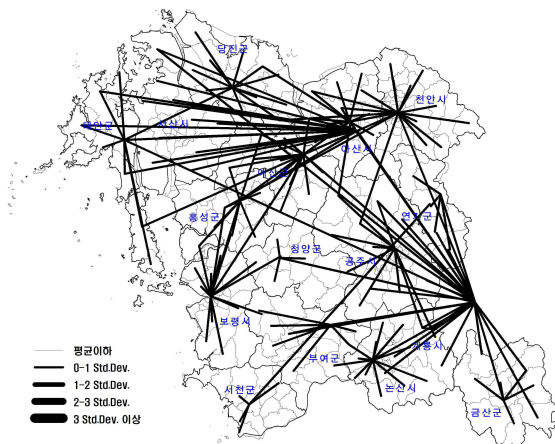
	일용품구매	가전제품	일반병원	종합병원
천안	98.98	98.76	98.98	93.31
공주	87.04	69.09	70.91	14.95
보령	91.36	88.31	87.18	58.44
아산	81.77	72.00	62.25	15.84
서산	96.85	91.20	81.06	32.79
논산	91.75	78.72	79.59	22.68
계룡	70.97	21.88	31.25	0.00
금산	81.08	36.11	66.67	19.44
연기	66.67	47.37	50.00	6.78
부여	88.14	51.72	64.41	6.67
서천	84.78	91.67	93.10	10.53
청양	70.83	16.00	32.00	4.00
홍성	89.47	83.93	81.36	27.12
예산	93.59	75.68	64.94	24.00
태안	68.97	36.21	43.10	5.45
당진	99.00	90.91	81.73	13.59
충남평균	90.21	78.99	78.03	41.72

자료: 충청남도, 지역주민의식 및 수요조사,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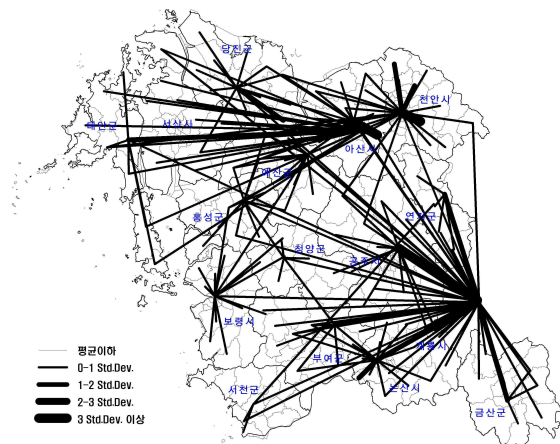
-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상품 및 서비스 계층별 생활권은 천안시와 아산시를 중심으로 하는 북부권과 대전시를 중심으로 하는 남부권으로 크게 구분되는 경향을 보임

- 일상용품의 경우 장항선 철도 축을 중심으로 해당지역과 주변지역간의 구매권이 형성되고, 특히 천안시와 아산시에 영향을 받고 있음. 또한, 대전시 주변도시는 해당지역과 대전시를 구매권으로 형성하고 있음
- 가전제품은 일상용품의 특성이 더욱 강하게 표현되고 있으며, 북부권의 일부도시에서 대전시까지 구매권이 형성되어 있음
- 일반병원 및 종합병원 이용권도 천안시와 아산시 중심으로 북부이용권과 대전시를 중심으로 하는 남부이용권으로 크게 구분되며, 북부이용권이 대전을 중심으로 하는 남부이용권으로 일부 흡수되는 경향이 있음
- 이러한 경향은 도시의 규모에 따른 고차서비스 집중과 함께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등 교통망 확충에 따른 접근성 향상이 주요 요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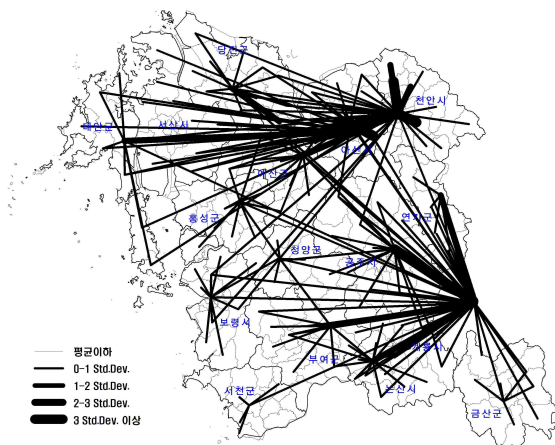
〈그림 I -20〉 일상용품 구매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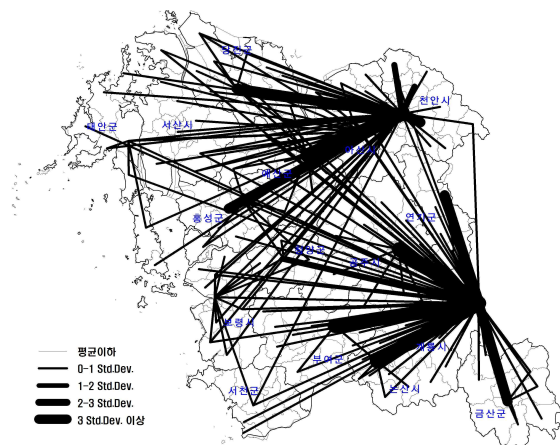
〈그림 I -21〉 가전제품 구매권



〈그림 I -22〉 일반병원 이용권



〈그림 I -23〉 종합병원 이용권



바. 지역경제

■ 지역총생산

- 충남지역의 지역총생산액은 2009년 현재 67조2136억원(2005년 기준년)으로 전국의 6.73%를 차지하고 있으며, 1인당 GRDP는 33,706천원으로 전국 시·도 1인당 평균 GRDP의 154.1%에 달하여 여타 시·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제기반이 우월함을 보여주고 있음
- 도내 1인당 평균 GRDP도 2005년 전국대비 137.1%에서 2009년 154.12%로 증가추이를 보임

〈표 1-15〉 지역총생산 및 1인당 지역총생산 추이(2000~2009)

(단위: 십억원, 천원)

구분		2000년	2005년	2009년
지역 총생산	전국	691,467.8 (100.0)	869,304.6 (100.0)	999,219.5 (100.0)
	충남	30,963.3 (4.48)	47,497.3 (5.46)	67,213.6 (6.73)
1인당 GRDP	전국	12,046.9 (100.0)	18,059 (100.0)	21,870 (100.0)
	충남	15,004.8 (124.55)	24,758 (137.1)	33,706 (154.12)

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05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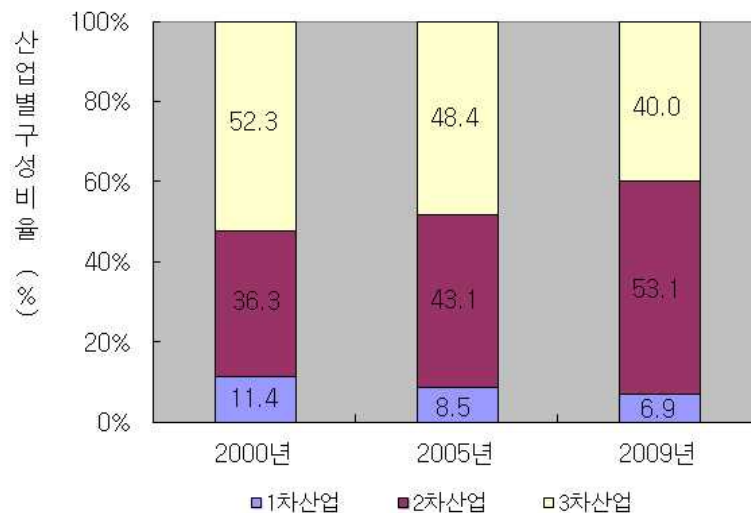
■ 산업구조

- 충남지역의 산업별 구성비를 2009년 현재 생산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농림어업 6.9%, 광공업 53.1%, 서비스 등 기타가 40.0%임. 이를 전국과 비교해 보면, 농림어업 비중이 전국 3.5%에 비하여 높은 반면, 서비스업 부문은 전국 평균치인 68.1%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충남의 산업구조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 이후 1차산업의 비중이 크게 낮아지는 반면, 2차산업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그림 I -24〉 전국과 충남의 산업구조 비교 2009년 (생산액 기준)



〈그림 I -25〉 충남의 산업구조 변화추이(생산액 기준)



■ 취업구조

- 충남지역의 취업구조는 1차산업 취업자가 2009년 현재 181천명으로 전체 산업별 취업자의 18.8%를 차지하여 전국평균 7.0%보다 크게 높고, 2차산업은 164천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7.1%를 차지하여 전국평균 16.4%보다 높으며, 3차산업 취업자비율은 64.1%로 전국평균 76.6%보다 크게 낮음

〈표 I -16〉 전국과 충남의 취업구조 비교(2009, 취업자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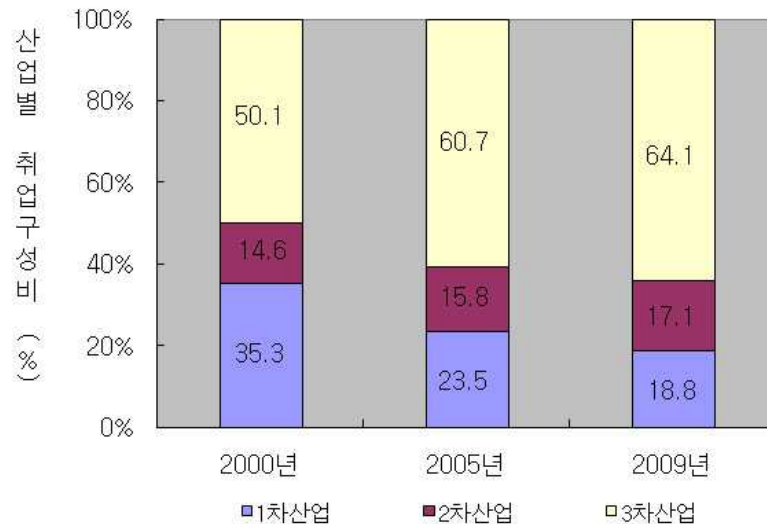
(단위: 천명)

구분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계
전국	1,648 (7.0%)	3,859 (16.4%)	17,999 (76.6%)	23,506 (100.0%)
충남	181 (18.8%)	164 (17.1%)	616 (64.1%)	961 (100.0%)

자료: 충청남도, 2010 충남통계연보, 2011.

- 충남지역의 취업구조 변화추이를 보면, 1차산업 비중이 2000년 35.3%에서 2009년 18.8%로 크게 낮아졌으나, 2차산업 및 3차산업 비중은 증가추세에 있음. 특히, 지역내 산업단지 조성효과로 2차산업 비중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1-26〉 충남의 취업구조 변화추이(2000~2009)



사. 사회간접자본시설

- 충남지역의 도로연장은 2009년 현재 전국의 7.4%인 7,803km이며, 도로포장률은 75.9% 수준으로 전국평균 79.2%에 근접하고 있음
- 주택 및 상하수도 등 생활환경수준을 보면, 2009년 현재 주택보급률(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은 113.3%로 전국의 101.2%에 비해 높은 수준이고, 2008년 현재 상·하수도 보급률은 77.7% 및 59.0%(2007년)로 전국평균인 94.1% 및 87.1%(2007년)에 비해서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충남지역의 생활환경 및 지역경제 여건을 나타내는 지역총생산, 1인당 GRDP는 전국평균에 비해 높은 반면, 도시화율, 도로수준 지표는 전국평균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임

아. 문화·관광자원

- 충남지역에는 2개소(계룡산, 태안해안)의 국립공원과 3개소(칠갑산, 대둔산, 덕산)의 도립공원이 분포되어 있음

- 충남지역은 백제문화권과 내포문화권이 지정되어 있고, 920점의 국가·지방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 등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
- 25개소의 지정관광지와 2개소의 관광특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70건의 축제가 충남지역내에서 해마다 개최되고 있음

〈표 1-17〉 관광자원 분포현황

구분		개소수	분포지역
자연자원	국·도·군립공원	6개소	•국립공원(2개소) : 계룡산, 태안해안 •도립공원(3개소) : 칠갑산, 덕산, 대둔산 •군립공원(1개소) : 연기 고북저수지
	온천	11개소	•온양, 도고, 아산, 덕산, 마곡, 홍성 등
역사문화자원	문화재	920점	•국가지정문화재(223점), 도지정문화재(390점), 문화재자료 307점 등
	향토문화축제	70건	•한산 모시문화제, 보령 머드축제, 금산 인삼축제, 강경 젓갈축제, 아산 성웅 이순신축제, 천안 흥타령 축제 등
관광자원	지정관광지	25개소	•삼교호, 구드래, 태조산, 신정호, 안면도 등
	관광특구	2개소	•보령해수욕장관광특구, 아산시 온천관광특구

자료: 충청남도, 도정백서, 2010.

사. 사회복지시설

- 2009년 현재 충남지역에 236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이 있고, 8,756명이 수용되어 있음
 - 유형별로는 노인복지시설이 72.9%, 장애인복지시설이 9.3%, 아동복지시설이 7.6%, 여성복지시설이 5.1%를 차지하고 있음
 - 수용인원으로는 노인 47.9%, 정신질환자 20.6%, 장애인 17.6% 등의 순임

〈표 1-18〉 사회복지시설 분포현황(2009)

(단위: 개소, 인, %)

구분	총계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정신질환자요양시설		부랑인시설	
	시설수	생활인원	시설수	생활인원	시설수	생활인원	시설수	생활인원	시설수	생활인원	시설수	생활인원	시설수	생활인원
계	236 (100)	8,756 (100)	18 (7.6)	892 (10.2)	172 (72.9)	4,193 (47.9)	22 (9.3)	1,488 (17.0)	12 (5.1)	240 (2.7)	11 (4.7)	1,803 (20.6)	1 (0.4)	148 (1.7)

자료: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2010.

2. 관련계획의 검토와 평가

가. 국가계획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지역발전 5개년계획(2009~2013),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2001~2020),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02~2011),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2010~2014), 국가환경종합계획(2006~2015), 제4차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2008~2012) 등 검토

나. 관련계획

-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2008~2025),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2020 대전권광역도시계획 변경계획(2006~2020),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2007~2014), 아산만권 광역개발계획(1995~2011), 충남 환경보전 종합대책 기본계획(2003~2020), 장항·군산권 광역개발계획(1996~2011), 대전·청주권 광역개발계획(1996~2011), 4대권 개발경영구상(1997) 등 검토

※ 국가 및 관련계획 검토는 자료집 참조

다. 도종합계획 수정계획의 평가(2005~2009년)

■ 인가지표

- 「제3차충청남도종합계획수정계획(2008-2020)」의 기준년도인 2005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충남의 인구는 연평균 1.17% 증가하였고, 도시화율도 2009년 현재 63.6%로 2005년에 비해 3.2% 증가하였음
- 1차산업 중심의 내륙 및 서해안지역의 인구는 저출산과 더불어 이농현상으로 감소한 반면,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지역의 서북부와 경부축의 지역인구는 증가하였음.

■ 지역경제지표

- 지역내 총생산은 2005년 47조4,97십억원에서 2009년 현재 67조0,55

십억원으로 1.4배 증가하였음

- 산업구조는 1차산업의 비중(생산액 기준)이 2005년 8.6%에서 2009년 6.9%로 낮아진 반면, 2차산업의 비중은 크게 높아졌음.
- 이는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역내 전자디스플레이, 자동차 및 부품산업, 철강, 석유화학 등 첨단산업 중심의 실물경제의 견실하게 성장한 반면, 1차 산업은 FTA와 더불어 경쟁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임

■ 사회기반시설지표

- 도로부문은 고속도로의 연장이 2005년 301.9km에서 2009년 448.5km로 약 1.4배 증가하였고, 국도의 연장은 2005년 1,315km에서 2009년 1,321km로 확충되었으며, 도로 포장률도 73.6%에서 75.9%로 신장되었음. 이와 같은 국도 및 지방도의 확충으로 도시와 도시, 도시와 농촌간의 교통연계가 향상되었음

■ 생활환경지표

- 상수도 보급률은 광역상수도망의 확충으로 2005년 63.3%에서 2009년 77.7%로 크게 향상되었음
- 생활 및 복지시설은 주로 대전시와 천안·아산시 등 도시지역의 시설을 많이 이용하였으며, 이의 주된 요인은 교통망의 확충임
- 주택보급률은 2009년 현재 113%에 달하지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과 적극적인 투자가 요구됨

■ 관광부문지표

- 2009년 관광객수는 89,633천명으로 2005년과 대비하여 약 1.08%가 증가하였음

〈표 1-19〉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2008-2020)」의 추진성과

부 문 별		단 위	추진성과		전망지표		비 고
			2005년 (현황)	2009년 (실적치)	2010년 (전망치)	2020년 (전망치)	
인구	인 구	천인	1,982	2,075	2,080	2,500	
	도 시 화 율	%	60.4	63.6	67.1	87.6	
경제	지역내총생산	10억원	47,497	67,055 ¹⁾	55,166 ²⁾	98,972 ²⁾	
	산 업 구 조	1차:2차:3차의 구성비	8.5:43.1:48.5	6.9:53.1:40.0	9.0:34.6:56.4	8.3:34.5:57.2	생산액 기준
교통	도로포장율	%	73.6	75.9 ³⁾	-	100.0	
	고 속 도 로	km	301.9	448.5 ³⁾	459 ⁴⁾	721 ⁴⁾	
	국 도	km	1,315	1,257.4 ³⁾	1,375	1,630	
	지 방 도	km	1,817	1,440.1 ³⁾	-	2,055	
생활 환경	주택보급률	%	129.1	113.0	98.7	103.3	
	상수도보급률	%	63.3	77.7 ⁵⁾	89	90.0	
복지	의료병상수	개	15,138	21,950	-	22,440	
	사회복지시설	개소	92	236 ⁶⁾	-	100	
관광	관광객수	천명	83,003	89,633	-	126,815	

- 1) 2005년 기준가격
- 2) 2000년 불변가격 기준
- 3) 실적치, 충남도 내부자료
- 4) 세종시(2005년 기준) 제외
- 5) 2008년 현재
- 6) 사회복지시설 중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부랑인시설 제외

자료: 충청남도,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2008~2020), 2008.
 충청남도, 2010충남통계연보, 2011.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3. 대내·외적 여건변화 분석

가. 거시적 여건변화와 전망

■ 무역자유화에 따른 지역경영전략의 변화

- 무역·투자자유화, 초국적기업의 세계화 전략, 지식정보화 등으로 인하여, 과거의 선진국 중심, 제조업 중심의 지구촌경제가, 향후에는 교육, 문화·예술, 공공서비스 등을 포함한 전 산업, 그리고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로 확산될 것임
- 한·미/한·EU FTA가 체결되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등 충남의 기술집약적 첨단제조업의 경쟁력은 강화되고 1차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2·3차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변화가 예상됨
 - 이에 따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방된 지역경영전략을 추구하되, 경쟁력을 상실하는 부문에 대한 발전정책 수립이 요구됨

■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불안정

-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국가의 재정위기로 세계적 금융위기와 전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우리나라 경제도 저성장과 불안정성이 지속될 것임
-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복지취약계층의 증가, 일자리 창출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고용없는 저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 문제 대두

-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이미 1980년대의 7.5%, 1990년대의 6.2%에서 5% 내외로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이러한 안정적 저성장 추세는 2020년까지 지속될 전망됨
- 5% 내외의 성장률은 경제성숙에 따른 자연적인 안정적 성장일 수도 있으나, 문제는 고용창출능력에 있음. 향후 고용창출과 사회안정을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잠재성장률 실현이 주요 경제현안으로 대두될 것임

■ 중국 성장에 따른 환황해권시대 전개

- 글로벌 경제에 따라 향후 중국은 지속적인 고성장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환황해권은 아시아경제의 중심지로 발전할 것임
- 충남은 중국과 가장 근접한데다 수도권과 인접해 있는 지경학적 유리성을 지니고 있어, 충남은 새로운 국가성장의 선도지역이자 환황해경제권의 생산-물류기지로서 그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저출산·고령화와 인구증가의 둔화

- 통계청의 예측에 의하면, 출산을 저하, 지속적인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충남은 2010년에 이미 고령사회²⁾에 진입하였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임.

〈표 1-20〉 충남의 고령인구 구성비 추이

구 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고령화율(%)	13.9	15.4	16.7	18.5	22.1

자료: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결과, 2007.

- 저출산의 영향으로 충남의 유년인구(0~14세)의 비율은 2005년 18.7%에서 2010년 16.3%, 2015년 13.8%, 2020년 12.3%로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표 1-21〉 충남의 유소년인구(0-14세) 구성비 추이

구 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구성비(%)	18.7	16.3	13.8	12.3	11.4

자료: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결과, 2007.

- 고령화는 노인복지의 문제와 성장잠재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음
 - 노령인구의 증가로 의료 및 사회보장 등에 대한 수요의 증대, 복지 정책 및 제도의 질 개선 요구 증대 등이 예상됨.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3대 노인문제(빈곤, 질병, 소외)도 발생할 수 있음
 - 취업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생산성 둔화 등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며,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임

2) 고령화 사회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 이상, 고령사회는 14% 이상, 초고령 사회는 20% 이상을 의미함

- 고령화로 인해 공공재원 조달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등에 따른 공공재원 조달 문제 및 국민부담 증가가 예상됨
 - 특히 경제활동인구(15~64세)가 노령인구(65세 이상)를 부양해야 할 부담은 가중될 것임
- 저출산·고령화는 충남지역에 장기적으로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킬 위험성도 있지만, 이보다 먼저 이미 고령화되어 있는 농어촌지역을 더욱 공동화(空洞化) 할 것임.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다각적인 정주 촉진대책의 추진이 필요함

■ 지구 환경문제와 에너지·자원 위기의 도래

-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빈번한 자연재해, 황사현상의 심화, 오존층 파괴 등 국제환경문제가 세계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음
-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수려한 경관 등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가 더욱 증가할 전망
- BRICs 국가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에너지 수요 증가, 화석연료 등 자원 공급이 한계에 봉착하여 새로운 에너지원 발굴이 중요 과제로 대두될 것임

■ 친환경, “삶의 질” 문화의 정착

- 산업화에 따라 경제활동이 환경용량을 초과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의 문제가 등장하였음
- 삶의 질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양적 성장 위주에서 질적 삶을 중시하는 웰빙 트렌드가 생활문화로 정착되고 여가와 문화관광수요가 증가될 것이며, 주5일 근무제에 따라 5都2村형 생활패턴이 확산될 것임
- ‘삶의 질’에 대한 가치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인간중심적 친환경·생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쾌적한 생활·정주환경 등 새로운 도시 및 지역개발 수요가 증대될 것임
- 도시, 농어촌의 삶의 질을 제고하면서 개발과 환경이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시책 및 제도정비가 요구됨

나. 충남의 여건변화와 전망

■ 인구와 산업의 총량적 성장 지속

- 충남의 총인구는 1990년 201.4만명에서 1995년에는 185.5만명으로 감소하였으나, 2000년 193.0만명, 2009년 207.5만명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이루어졌으며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충남지역 내부적으로는 지역간 인구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될 가능성이 큼
- 충남지역은 과거의 국가성장의 배후지역에서 국가성장의 선도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음. 충남의 인구, GRDP, 1인당 GRDP, 제조업체수(5인 이상 제조업체 기준), 제조업 생산액 연평균 증가율은 전국의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으며, 전국의 제조업 종사자수는 감소한 반면 충남의 제조업 종사자수는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충남지역 내부적으로는 천안·아산 지역은 수도권에 기능적으로 편입되어 성장 속도가 가속화되지만, 충남 중부내륙 및 서해안축은 1차 산업 중심으로 상대적 저발전 상태에 있어 발전격차가 심화되면서, 충남지역의 정체성, 안정성, 지속성, 유기적 발전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결국, 충남 중부내륙 및 서해안 지역은 저성장지역으로, 세종시 인근 지역은 발전지역으로, 충남 서부-북부 지역은 광역수도권 영향권 등으로 충남이 공간적으로 분절될 우려가 있음

〈표 1-22〉 전국과 충남의 주요 인구·경제지표의 연평균 증가율(2005~2009)

(단위: %)

	인구	GRDP	1인당 GRDP	제조업체수	제조업 종사자	제조업 생산액
전국(A)	0.5	5.2	4.9	-1.5	-1.3	8.8
충남(B)	0.9	8.2	7.8	0.0	2.5	15.0
(B/A)	1.867	1.573	1.586	n.a.	n.a.	1.714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해당년도

■ 제조업 중심의 산업지역으로 전환

- 충남의 2차산업 비중(생산액 기준)은 2005년 43.1%에서 2009년 53.1%로 전국의 28.4%를 상회할 정도로 전통적 농업지역에서 제조업 중심의 산업지역으로 전환되고 기업의 입지잠재력도 더욱 향상될 것임

■ 세종시 건설과 연계 네트워크 강화

- 공주·연기지역에 2030년까지 중앙행정기관 9부2처2청의 이전, 인구 50만명의 세종시가 건설되면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행정도시권은 중부 지역의 한 대도시권을 형성할 것임
- 세종시와 주변 도시간의 상호보완적 발전을 위해서는 세종시와 주변 도시간 수평적, 호혜적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함
 - 주변 도시의 기능과 서비스수준을 제고하고, 주변도시의 잠재력에 기반한 특화 사업을 발굴하여 세종시와 네트워크체계를 구축해야 함
 - 대전~세종시~천안·아산~충북 청원 등 경부축선상의 지역과 내륙 서해안지역과의 광역 차원에서의 기능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야 함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가 대전에 건설됨에 따라, 기능지구(세종, 천안, 청원)와의 공간적·기능적 연계체계 형성이 요구됨
 - 세종시와의 기능 분담과 생활기반시설의 공동활용을 통해 상호보완성을 강화해야 함

〈그림 1-27〉 세종시와 주변지역 연계체계



- 세종시와 광역도시권과의 연계네트워크 형성이 지역단위 경쟁력 향상에 중요한 과제로 등장함
 - 세종시와 3대 문화권(백제문화권, 내포문화권, 중원문화권), 대전의 과학기반 문화관광 등 문화관광벨트를 구축하고, 세종시 주변지역의 난개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함

■ 내포신도시 건설과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

- 2012년 홍성·예산지역으로의 도청이전을 계기로 내포신도시와 각 시·군간 교통체계가 정비되면, 충남은 대부분의 지역이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될 것임
- 도청이전에 따라 환황해권시대 거점지역으로서 서해안지역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고, 경부축을 중심으로 기능이 집적된 불균형적 지역구조에서 벗어나 충남 내륙, 북부, 서해안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임
- 국가균형발전의 중심권의 영향이 황해로 전파될 수 있도록 문화교육산업적 측면에서 기능적 상호보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내포신도시는 주변의 도시 및 주요 집적지들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충남 서부지역의 발전을 견인함과 동시에 지역간 균형발전을 선도할 가능성이 크지만, 막대한 자원투입으로 전략적 도정과제 수행을 어렵게 할 수도 있음

■ “저탄소 녹색성장”의 지역적 구현

- 저탄소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저감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전략임
 -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경제·산업구조와 삶의 양식은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되고, 지속가능한 성장잠재력이 확충될 것임
- 충남은 화력발전소가 위치하여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음
 - 2006년 현재 충남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5.21탄소톤으로 전국평균인 3.34의 4.6배에 달하며, 소득대비 배출량은 0.51탄소톤/백만원으로 전국 평균(0.19)의 2.7배 수준임
 - 충남에서 생산된 전력 상당량이 수도권 등 타지역으로 공급되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8.66탄소톤에 달해 전국 평균보다 2.6배 높게 배출되고 있는 실정임
 - 충청남도의 온실가스배출량은 2001~2006년 기간중 전국 평균 2.70%의 약 2배인 연평균 5.49%씩 증가함. 지역적으로는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당진, 태안, 보령지역이 가장 높으며, 상대적으로 산업발전정도가 높은 천안, 아산, 서산지역이 다음 순서임

- 충남은 인간의 ‘삶의 양식’ 까지 포괄하는 녹색성장을 분야별로 구현할 필요가 있음
 - 산업·경제부문에서는 녹색산업의 육성과 주력산업의 ‘녹색화’를 추진하고,
 - 도시·교통부문에서는 저탄소 녹색도시를 지향하며,
 - 환경부문에서는 오염원을 관리하고 생태환경을 복원할 필요가 있음

■ 금강유역의 전략적 개발

- 물 부족에 대비한 수자원 확보, 홍수조절용량 확보, 하천의 다기능 복합공간 개조, 지역발전을 위한 연계사업 등을 목적으로 금강유역에 노후제방 보강(117km), 다기능보(3개), 생태습지지구(6개), 생태림(80만 m²), 자전거도로(248km) 등이 건설될 예정임
- 충남은 금강유역의 낙후성 개선을 위해 문화관광거점 조성, 금강 주변 농어촌개발 등 전략적 과제를 안고 있음

■ 새로운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지역수용성 강화

- 중앙정부의 서해안 신산업벨트, 5+2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등 3차원적 지역발전전략에 따라 지역의 전략적 대응이 요구됨
- 서해안신산업벨트와 연계하여 동북아시아 지역의 대외성을 강화하고, “5+2 광역경제권계획”에 따라 충남 전략산업을 연계 발전하며, 기초생활권을 중심으로 지역의 삶의 질을 제고시켜야 할 것임

〈그림 1-28〉 충청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자료 : 충청광역경제권위원회, 충청광역경제권 장기발전 구상 및 추진전략 연구, 2009.

다. 충남의 기능 및 역할 전망

■ 국가혁신의 선도지역

- 충남은 지식기반시대 혁신주도적 성장전략의 모범지역으로 국가혁신을 주도할 것임
- 충남은 세종시의 중앙행정기능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연구 성과 등과 연계하여 지역의 산업, 교육, 연구 등의 다양한 부문에서 지역 혁신을 창출하고, 나아가서 국가적 혁신을 촉진하는 촉매자의 역할을 할 것임

■ 중부권의 성장거점

- 금강유역의 개발을 통해 세종시~서천까지의 충남 남부지역 일대의 발전을 촉진하고, 나아가 중부권의 성장거점으로 발돋움할 것임
- 공주·부여지역의 백제권은 과거와 미래가 융합된 새롭고 독창적인 문화권을 형성하여 금강르네상스 상징지역의 이미지를 구축할 것임

■ 교통의 중심지역

- 경부·호남고속철도가 통과하여 전국에서 2시간대로 연결되는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임
- 서울~세종고속도로, 부여~평택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충청선(보령-세종), 서해선복선철도 등의 건설로 교류와 물류의 거점지로 거듭날 것임

■ 환황해권 서해안시대의 주역

- 서해안지역은 세종시와 내포신도시의 배후 관광·항만지역으로 중요한 대 중국권 교류지역으로 성장할 것임
- 아산만 주변지역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기능지구로서 환황해권시대 첨단산업지역으로 개발되어 충남은 서해안시대의 주역으로 등장할 것임

4. 지역주민 의식조사

가. 조사 개요

- 조사기간은 2010.7.19 - 9.11일까지 약 8주간이 소요되었으며, 인구 비례추출법에 의해 총 2,000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시·군별로 할당하여 조사하였으며, 회수율은 94.9%(1,898부)였음
-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 53.2%, 여자 46.8%이었고, 연령별로는 20대 18.1%, 30대 34.6%, 40대 28.1%, 50대 15.5%, 60대 1.8%, 60대 이상이 1.8%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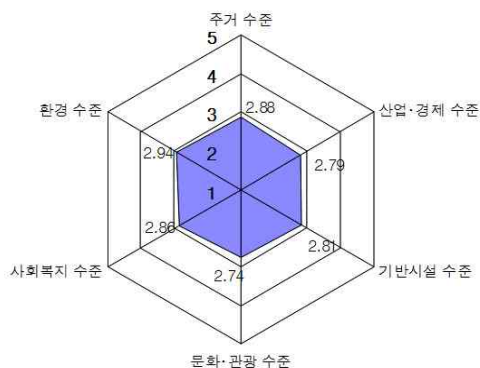
나. 분석결과

1) 지역개발

■ 발전수준 및 발전방향

- 충남의 발전수준은 2.8(5점 척도)로서 평균 수준을 약간 상회함
- 부문별로 주거부문, 산업·경제, 기반시설, 문화·관광, 사회복지, 환경부문은 다른 도에 비해 개발수준이 유사하거나 약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은 2.6점으로 평가되었음
- 발전 장애요인으로서는 지역간 불균형 심화(24.2%), 교육서비스·인력개발 수준 미흡(18.0%), 산업기반 부족(16.2%) 순임

〈그림 1-29〉 충남의 상대적 발전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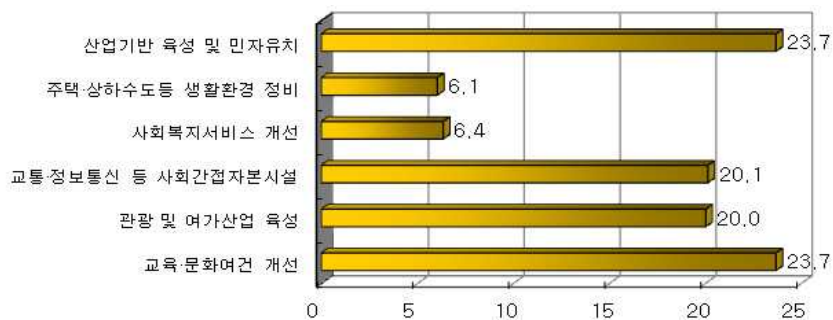
〈그림 1-30〉 발전 장애요인



■ 지역의 발전방향 및 우선적인 지역개발 추진 분야

- 지역의 발전방향으로는 첨단산업 중심지역 및 관광·여가산업 중심지역 (31.6%, 28.3%)으로 발전하기를 바라고 있음
- 산업기반 육성 및 민자유치와 교육·문화여건 개선이 23.7%로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21.3%)과 관광 및 여가산업 육성(23.4%)등의 중점투자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사됨

〈그림 1-31〉 중점투자 및 개선이 필요한 분야



2) 도시개발 및 정주기반 정비

■ 시·군별 발전방향

구분	충남 도민이 바라는 발전방향	
	1순위	2순위
천안시	첨단산업도시(29.2%)	교육도시(19.6%)
공주시	역사·문화·예술도시(22.4%)	관광·휴양도시(19.4%)
보령시	관광·휴양도시(46.9%)	첨단산업도시(14.6%)
아산시	첨단산업도시(31.9%)	교육도시(23.4%)
서산시	첨단산업도시(32.3%)	관광·휴양도시(19.3%)
논산시	첨단산업도시(24.4%)	역사·문화·예술도시(18.1%)
계룡시	환경·생태도시(26.3%)	역사·문화·예술도시(23.7%)
금산군	교육도시, 환경·생태도시(19.6%) ¹⁾	-
연기군	행정도시(45.9%)	첨단산업도시(17.6%)
부여군	역사·문화·예술도시(42.3%)	관광·휴양도시(21.2%)
서천군	환경·생태도시(40.4%)	관광·휴양도시(21.2%)
청양군	관광·휴양도시(36.4%)	환경·생태도시(21.2%)
홍성군	역사·문화·예술도시(41.4%)	첨단산업도시, 교육도시, 관광·휴양도시(12.9%) ¹⁾
예산군	관광·휴양도시(25.6%)	첨단산업도시(24.4%)
태안군	관광·휴양도시(53.5%)	첨단산업도시(14.1%)
당진군	첨단산업도시(19.1%)	교육도시, 관광·휴양도시(18.3%) ¹⁾

주1: 순위가 같음

■ 지역별 투자 및 개선 요구사업

- 충남은 교육·문화·의료시설의 확보가 가장 시급한 사업으로 조사됨

〈표 1-23〉 지역별 시급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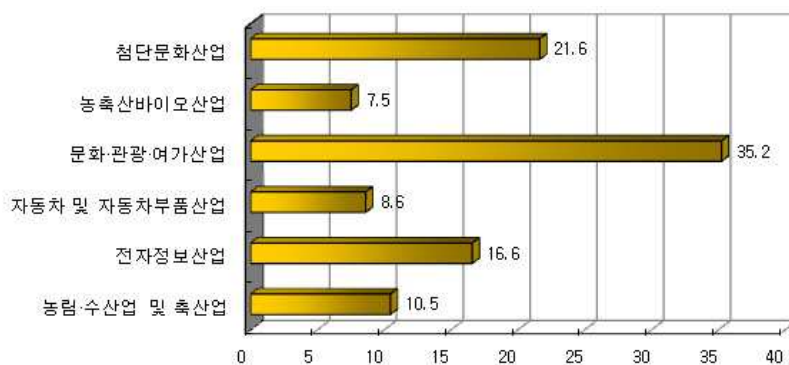
구분	자연환경 조성 및 복원	공원· 여가시설 확보	하천수질 개선 및 정비	교육·문화·의 료시설 확보	주거환경 개선	도로포장 및 확장	유통물류단지 조성	산업단지 조성	전체 (명)
천안시	7.3	24.7	8.2	28.3	13.8	9.8	2.2	5.8	(551)
공주시	3.8	12.2	5.3	42.7	6.9	4.6	2.3	22.1	(131)
보령시	8.4	16.8	4.2	44.2	6.3	10.5	0.0	9.5	(95)
아산시	2.1	17.1	3.0	53.4	6.8	12.8	2.1	2.6	(234)
서산시	0.6	8.9	4.5	49.7	10.8	16.6	0.6	8.3	(157)
논산시	4.0	24.8	4.8	30.4	13.6	4.0	1.6	16.8	(125)
계룡시	5.3	13.2	2.6	63.2	5.3	2.6	0.0	7.9	(38)
금산군	10.2	4.1	4.1	38.8	14.3	14.3	4.1	10.2	(49)
연기군	1.3	14.5	3.9	55.3	7.9	5.3	1.3	10.5	(76)
부여군	5.6	5.6	4.2	49.3	15.5	1.4	2.8	15.5	(71)
서천군	3.7	3.7	3.7	63.0	5.6	1.9	5.6	13.0	(54)
청양군	3.3	3.3	6.7	40.0	3.3	13.3	10.0	20.0	(30)
홍성군	5.7	12.9	5.7	42.9	20.0	1.4	1.4	10.0	(70)
예산군	0.0	7.9	3.4	53.9	9.0	5.6	2.2	18.0	(89)
태안군	5.6	14.1	2.8	45.1	11.3	8.5	2.8	9.9	(71)
당진군	3.7	11.2	3.7	64.9	3.0	9.7	3.7	0.0	(134)
전체	4.49	12.3	4.62	48.1	9.89	8.02	3.11	11.7	(1,975)

2) 지역산업

■ 산업 부문

- 충청남도가 추진해야 할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역점사업은 문화·관광·여가산업(35.2%), 첨단 문화산업(21.6%) 등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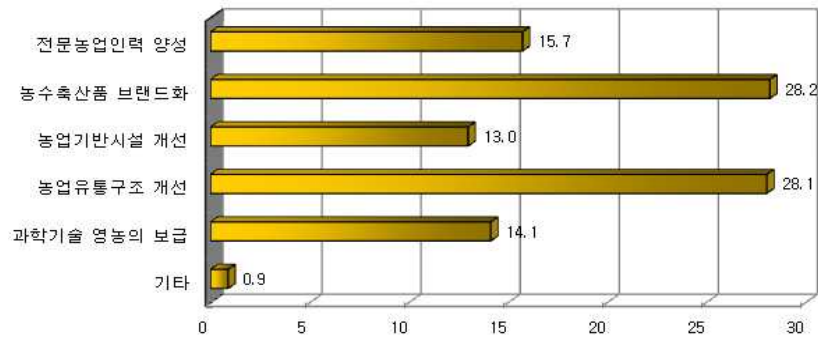
〈그림 1-32〉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역점사업



■ 농업 부문

-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농수축산물 브랜드화(28.1%), 농업유통구조 개선(28.2%), 전문농업인력 양성(15.7%), 과학영농기술 보급(14.1%), 농업기반시설 개선(13.1%) 등의 순으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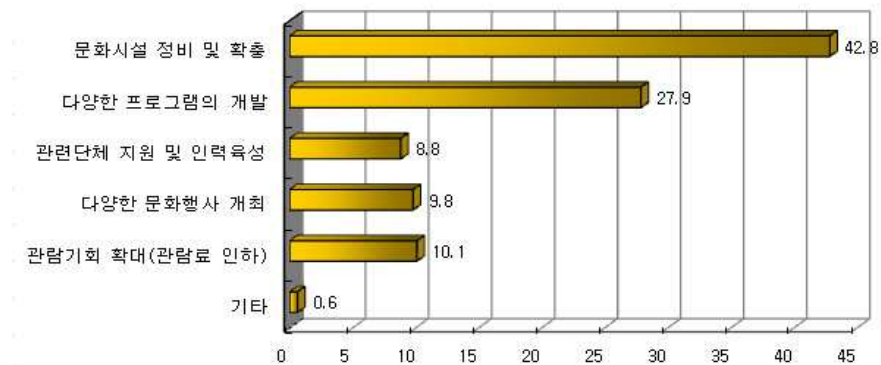
〈그림 1-33〉 농업발전 위한 추진시책



■ 문화 및 예술 진흥방안

-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문화시설 정비·확충(42.8%)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27.9%)이 시급하며, 개발 잠재력이 높은 관광자원으로는 자연경관 및 생태자원(39.8%), 역사유적 및 유물(15.8%)로 조사됨
-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이벤트·관광코스·특산물 등의 관광상품 개발(25.1%), 관광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16.8%), 관광기반시설 확충(15.7%), 관광지 개발(14.5%), 관광정보 및 마케팅 활성화(10.6%)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그림 1-34〉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우선시책



3) 환경·문화 및 복지서비스

- 전체적인 생활 만족도는 보통(49.8%), 만족(36.1%) 순으로, 주택·주거여건 영역은 만족하나, 그외 영역에서는 불만족이 높게 조사됨

■ 삶의 질 개선

- 2020년 이후 거주하고 싶은 지역은 대도시 인근지역(38.5%), 중소도시(32.0%), 농어촌(17.0%)로 나타나 대도시보다는 편의시설과 복지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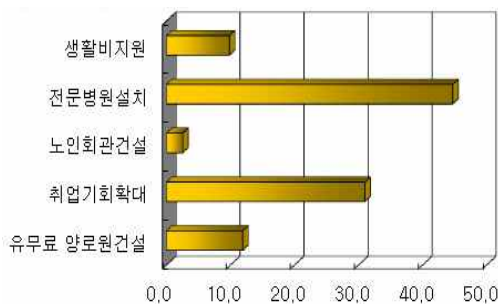
택을 누리면서도 비교적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함

- 희망하는 주거유형으로는 전원주택(40.6%), 고층아파트(33.0%), 단독주택(21.2%) 순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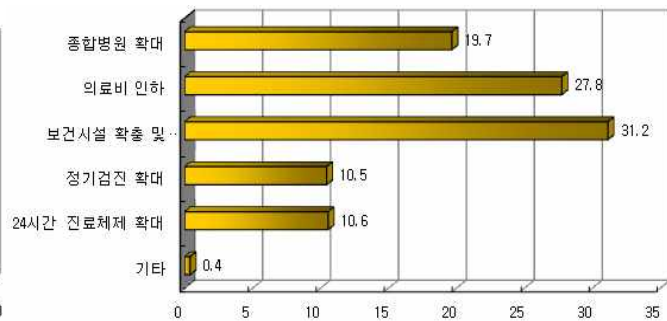
■ 사회복지정책

- 역점 추진 사회복지정책으로 아동복지(30.5%), 노인복지(27.3%)가 높게 나타나 자녀복지와 고령사회에 대한 인식이 높음
- 노인복지정책으로는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저렴한 의료서비스 제공(44.7%), 취업기회 확대(31.0%)순으로 응답함
- 보건의료정책은 보건시설 확충과 의료인력 보강(31.2%), 의료비 인하(27.8%), 대학 및 종합병원 확대 설립(19.7%) 순으로 조사됨

〈그림 1-35〉 사회복지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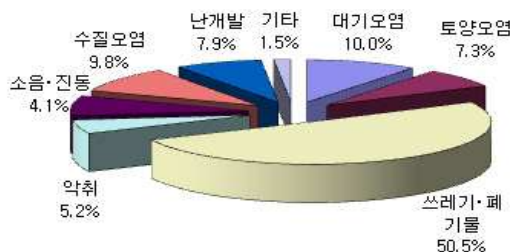
〈그림 1-36〉 보건의료정책



■ 자연환경의 보전과 관리

-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그저 그렇다(64.2%)가 많았으며, 가장 심각한 문제로 쓰레기·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50.5%)을 들, 지역별로는 6개 시·군(천안, 보령, 아산, 서산, 홍성, 당진)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됨

〈그림 1-37〉 충남의 심각한 환경오염 유형



■ 지방자치 및 행정

- 행정서비스 분야에서는 인허가 서류 간소화(36.8%), 신속한 민원처리(21.8%), 공정한 행정처리(20.0%) 순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나타남

5. 충남지역의 발전여건 분석: SWOT 분석 및 계획과제

가. SWOT분석

1) 강 점(Strengths)

■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교통·교류의 중심지

- 충남도는 전국으로부터 2시간 교통시간거리에 위치한 국토의 중심지에 위치한 교통·교류의 중심지임
-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2011~2020)』의 「개방형 녹색국토」에서 환황해권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서해안 신산업벨트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임

■ 개성이 있는 풍부한 역사·문화·관광자원 보유

- 백제라는 독특한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보하여 이와 관련된 많은 역사·문화·관광자원이 분포됨
- 서민 중심의 내포문화권과 선비정신을 담은 유교문화권의 문화·관광자원, 천주교·불교 전래지역으로서의 종교·문화자원은 지역의 문화적 고유성을 나타냄

■ 보전가치가 높은 다양한 생태자원 보유

- 서해안에는 산업화속에서 그 경제가치가 높은 갯벌자원과 철새 등 많은 생태자원이 보전되어 있음
- 친환경 웰빙의 가치가 증대되고, 주5일근무제가 일상화되면서 도시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산악·휴양자원이 차령산맥과 금북·금남정맥의 주변에 산재되어 있음

■ 첨단산업의 입지적 우수성과 광역적 연계성이 용이

- 해양과 수도권과 연접해 첨단 제조업이 유치되고 있으며, 수도권과 연접하여 수도권기업의 지역내로의 이전이 지속되고 있음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오송생명과학단지와의 첨단산업의 광역적 연계가 용이함

2) 약 점(Weaknesses)

■ 발전지역과 낙후지역과의 발전격차 심화

- 지역의 북부권은 전자·철강·석유화학 등 제조업중심의 산업집적지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 1차 산업 중심지역은 인구감소와 더불어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
- 북부권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낙후지역의 내발적 발전구조는 취약한 실정임

■ 미약한 내발적 발전구조

- 농수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농어촌지역은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취약해짐
- 대기업에 의한 지역생산구조로 지역 중소기업이 취약하고, 발전성과의 역외유출이 이루어짐

■ 동서간 연계교통체계 미비로 공간통합성 결여

- 지역의 남북간 연계교통체계 형성으로 서해안고속도로 중심의 서해안권, 경부고속도로 중심의 북부권, 대전광역권의 기능적통합은 형성되었으나, 동서간 연계교통망이 미비하여 동서지역간 기능적 연계는 미흡함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포함한 세종시와 서해안권을 연결하는 교통망이 미비하여, 경부축과 서해안축의 연계가 부족함

■ 취약한 기술기반과 인적 자본

- 지역의 취약한 연구기반과 기술개발환경으로 원천기술개발이 미흡하고, 산·학·연 협력네트워크도 미약함
- 하드웨어 중심의 지역발전전략으로 지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인적 인프라가 미흡

3) 기회요인(Opportunities)

■ 세종시건설과 중앙행정기관 이전

- 2012년 7월 출범을 계기로 세종시는 국가중추행정기능을 담당하여, 국토와 충청 중부권 지역발전의 핵심거점으로 성장할 것임

- 세종시와의 기능적 연계를 통해 충남의 세종시 연접지역은 세종시와 더불어 중부권의 성장지역으로 발돋움할 것임

■ 내포신도시건설로 서해안·중부내륙 성장거점 기반 마련

- 내포신도시건설로 중부내륙과 서해안권 발전이 촉진되어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이 될 것임
- 내포신도시는 장기적으로는 환황해경제권시대에 개방형 국토개발을 위한 성장거점도시로서의 역할 수행이 예상됨

■ 서해안·내륙지역 접근성 개선

- 대산~당진/당진~천안/부여~평택/서울~세종고속도로의 건설과, 서해선 복선전철, 충청선(보령-세종) 건설 등으로 충남도내 지역간 접근성이 개선될 것임
- 고속도로·철도건설은 충남도내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내륙권과 금강권의 발전을 촉진하여 지역내 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임

■ 중국의 성장으로 환황해권 생산·교류거점으로 성장 가능

-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중국이 성장하여 충남은 환황해권의 생산거점 뿐만 아니라 교류거점으로 발전할 것임
- 충남도의 북부권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기능지구로 기초과학의 연구성과를 산업화하는 중추 첨단과학산업지역으로 발전할 것임

4) 위협요인(Threats)

■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지역발전의 모멘텀 약화

- 수도권 규제가 완화될 경우, 수도권 소재기업과 기능이 충남 서북부지역으로의 이전이 제한되어, 지역의 발전 모멘텀이 약화될 수 있음.
-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의 수도권으로의 유출을 확대하여 지역발전의 선순환구조를 약화시킬 수 있음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 확대

-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감소지역인 농어촌지역의 공동화와 고령화를 가속화할 수 있음

- 또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사회복지비용의 증가를 유발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이 저하될 수 있음

■ FTA확대에 따른 1차산업(지역) 약화

- 한·미/한·EU FTA 등이 체결되면 농·축·수산업 등 지역의 1차산업은 더욱 위축될 것임
- 농어촌 지역도 경쟁력 약화로 인구유출이 가속될 수 있음

■ 환경·생태계 파괴로 인한 삶의 질 약화

- 내포신도시·기업도시건설, 금강살리기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난개발과 환경·생태자원의 파괴가 우려됨
-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생태계 혼란, 자연재해 등 재난으로 삶의 질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음

강 점 (Strengths)	약 점 (Weaknes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교류중심지로서의 입지잠재력 ▪ 다양한 생태자원 보유 ▪ 풍부한 문화·역사·관광자원 보유 ▪ 용이한 첨단산업의 광역적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 동서지역간 공간 통합성 미약 ▪ 지역간 발전격차 심화 ▪ 미약한 내발적 발전구조 ▪ 취약한 기술기반과 인적 자본
기 회 (Opportunities)	위 협 (Thre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시건설과 수도권기능 이전 ▪ 홍성·예산지역 내포신도시 건설 ▪ 서해안·내륙지역의 접근성 개선 ▪ 환황해권 생산·교류거점으로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규제완화 가능성 상존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 ▪ FTA확대로 1차산업(지역) 약화 ▪ 환경·생태계 파괴로 인한 삶의 질 약화



지역균형, 내발적 발전, 복지, 환경을 핵심주제로 설정하여
지역균형발전, 내발적 산업경제,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성 확보에 역점

나. 계획과제

1) 지역거점도시 연계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추구

- 세종시, 내포신도시와 주변도시간의 상생발전 방안 모색
- 낙후지역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SOC 확충방안 마련
- 환황해권 생산·교류거점 구축

2) 지역의 내발적 발전기반 구축

- 경제적, 사회적, 친환경적인 통합발전 추구
- 지역자원의 성장동력화, 개발성과의 지역내 순환체계 확립
- 도·농간 공생의 선순환구조 확립

3)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기반 마련

- 저출산 극복 및 생애주기별 복지대책 강구
- 고령화사회 노인복지를 위한 사회적 책임 강화
- 고용·교육복지 등 생산적 복지 방안 실현

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 구축

- 산·강·바다를 잇는 통합적 생태네트워크 구축
- ‘푸른 충남’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
- 체계적인 경관관리 및 어메니티 확충

제 3 장

지역발전의 목표와 전략

1. 계획의 기본이념

2. 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

3. 주요 계획지표의 전망

4. 공간구조의 설정

1. 계획의 기본이념

■ 개방·미래지향성(globalization and future-oriented)

- 21세기 세계화된 경제체제에서 독자적 경쟁력을 지닌 지역을 창출하기 위하여 지역의 내발적 발전, 문화·전통의 국제화 등 개방성을 추구함

■ 창조·실천성(creativity and practice)

- 충남지역이 새롭고 창의적인 지역발전을 이루도록 능동적이고 실천력 있게 추진함

■ 쾌적·지속가능성(amenity and sustainability)

- 지역 고유의 생태·경관자원 보호 및 환경의 쾌적성을 증진하고,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추구함

■ 문화·정주성(culture and livability)

- 지역고유의 전통과 문화의 고양, 개발의 질적 탁월성 증진, 교육·의료·사회서비스 등 종합적인 주거복지환경 조성 등 살 맛 나는 지역정주기반을 구축함

■ 참여·협력성(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 지역발전 추진에 있어서 지역의 주민, 대학, 기업 등 다양한 개발주체의 자발적, 민주적 참여를 증진하고, 지역간 경쟁과 협력, 제휴를 통한 지역중심 발전체계를 구축함

2. 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

가. 계획의 기초

기 조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 기초설정의 배경

- 최근 대·내외적인 여건변화 속에서 충남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람중심으로서의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어,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본 계획의 기초로 설정함

■ 행복한 변화

- “행복한 변화”는 세계적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삶의 질을 증진하고
- 사람중심의 도시·농어촌마을을 만들고, 지역내 순환과 공생의 자립적 발전기반을 확립하고
- 고령화시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수요복지, 인간중심의 교육·투자로서 사회적 형평성을 증진하고,
- 환경과 개발이 공존하여 친환경 자연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인간중심의 지속가능한 변화를 나타냄

■ 새로운 충남

- “새로운 충남”은 원칙과 신뢰에 기반을 둔 대화와 소통을 통해 도정 발전을 추구하고,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시정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달성하며,
- 수도권과 대기업에 편중된 一極중심의 집중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지역간 조화로운 발전을 이룩하며,
- 도민의 참여와 창의행정을 통해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주민자치와 이 실질적 민주주의의 구현을 의미함

나. 계획의 목표

■ 균형 있는 지역발전

- 내포신도시를 성공적으로 건설하고, 그 성과와 혜택을 도내 모든 지역으로 확산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룩
- 충청권 선도산업과 지역별 특화산업을 육성하여 모든 지역이 자생력 있고 특화된 발전기반을 구축

■ 내실있는 산업경제

- 지역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한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기업지원체계를 구축
- 지역 산업연계에 기반한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고용인프라를 확충해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
-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주민 주도의 발전을 추구하고, 발전성과를 지역주민이 누릴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확립

■ 활력있는 농어촌

- 지역경제의 순환, 생산과 소비의 순환, 도시와 농촌의 공생 등 ‘순환과 공생’의 원리에 기초하여 농어업을 활성화
- ‘사람’의 실질적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살기 좋은 농어촌지역」을 실현

■ 함께하는 교육·복지

- 고령화와 양극화로 인한 취약계층의 사회적 소외를 해소하고,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충남을 구현
-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사회투자를 확대하여 지역혁신을 도모하고 지역의 발전잠재력을 강화

■ 매력적인 문화·환경

- 개성있는 지역문화권을 형성하고, 특색있는 관광기반을 구축
-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통해 인간과 상생하는 건강한 녹색환경을 창출

다. 추진전략

추진전략	주요과제
살기 좋은 도시농촌 생활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중심의 혁신적 도시개발 및 정비 • 활력 있는 농산어촌 육성
순환과 공생의 지역경제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력 있는 농·림·축·수산업 육성 • 신성장동력산업 및 강소기업 육성 • 서비스업의 지식기반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매력적인 지역문화 창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적이고 특색있는 문화기반 조성 • 편리한 관광인프라 구축 및 지역특화자원 개발
사통팔달의 교통·정보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방위 교류·교역 활성화를 위한 입체적 교통체계 구축 • 생산·물류 신중심권 구현을 위한 물류·유통기반 강화 • 디지털복지사회를 위한 유비쿼터스 충남 구현
근심없는 주거·복지·평생교육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인 에너지 절약형 주거환경 조성 • 지속적인 공공복지·의료 서비스체계 구축 및 확대 • 창의적 인적자원 육성 및 평생교육체계 강화
안정적·창조적인 지역자원의 활용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적 토지이용과 관리 • 지역특성을 따른 매력적 지역경관 형성과 관리 •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와 효율적 수요관리 • 친환경 에너지·지하자원 개발 및 관리
지속가능한 자연 및 생활환경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생태망 구축과 자연환경 보전·관리 • 대기질 관리와 기후변화협약 대응체제 구축 • 깨끗하고 안전한 친환경 물관리 • 안정적인 폐기물 관리와 재활용기반 구축 및 지원 • 재해에 강한 안전충남 조성

3. 주요 계획지표의 전망³⁾

가. 인구지표 전망

1) 인구지표 설정

■ 인구지표 설정의 전제

- 계획지표는 지역발전에 대한 의지의 표현보다는 실천가능성을 바탕으로 대·내외적인 환경과 국가정책의 추진 등 충남지역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변화전망을 전제로 하여 설정하였음
- 특히, 인구지표의 설정에 있어서는 중앙정부가 국가발전 및 성장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다양한 정책이나 시책의 계획적인 추진을 전제하였음
- 다만, 2012년 7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연기군 전체지역(361.4km²)과 공주시 일부지역(장기, 의당, 반포면 일부지역 76.6km²)이 충청남도 행정구역에서 제외되어 세종특별자치시로 출범하게 되므로, 2020년 계획인구는 연기군(세종시) 인구를 제외하여 추정함

■ 인구지표 전망

- 인구지표가 미래상으로서 당위성과 현실성을 동시에 지니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석을 통한 대안을 제시하였음. 즉, 인구지표 설정은 상한치와 하한치를 제시함으로써 미래변화와 불확실성을 감안토록 하였음
 - 상한치는 기존 국가정책과 사업추진이 모두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상정하였고, 하한치는 기존의 정책추진이 부진한 경우로서 현재의 인구증가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를 상정하였음. 이와 함께 적정치는 지역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전제로 추정하였음. 이와 같은 계획인구 대안 가운데 부문별 계획수요 전망은 안정성장치를 활용하였음

3) 계획지표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표들을 기준으로 하고, 충남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도록 설정하였음

■ 안정성장 시나리오: 1,969천명(2010년) → 2,400천명(2020년)

- 안정성장치는 수도권이전기업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정책효과를 토대로 추정하였음. 안정성장치 시나리오에 의한 계획인구는 자연증가분과 신성장거점도시 조성 및 계획입지 조성에 따른 유발인구를 토대로 한 사회적 증가분의 구분에 의한 추정방법을 사용하였음
 - 자연증가분의 추정은 생산모형에 의한 조성법을 사용하되, 인구의 전출입을 가감하지 않고 인구의 출생률 및 사망률만 고려하여 순수한 자연증가분만 계산
 - 사회적 증가분은 ①도청이전신도시, 아산만권 신도시, 태안기업도시, 황해경제자유구역(송악, 인주지구) 등 신도시 개발⁴⁾과 ②계획입지 전망수요를 토대로 외부 유입인구를 추정하여 합산 적용
 - 이 중에서 계획입지 전망수요에 따른 인구증가분은 목표연도의 계획입지 면적⁵⁾을 기준으로 고용인구⁶⁾와 유발인구⁷⁾를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외부유입률을 감안한 외부유입인구⁸⁾로 산정. 이 중에서 충청남도의 제3세대형 산업단지 조성 시책으로 인해 신도시(내포신도시, 아산만권 신도시)에서 산업단지 외부유입인구의 일정비율⁹⁾을 수용한다는 전제하에 신도시 조성에 따른 유발인구와 계획입지 조성에 따른 유발인구 간 중복산정(double counting)을 배제. 최종 산정된 외부 유입인구는 144천명으로 50:50으로 단계별로 배분
- 이와 같은 방법으로 추정한 결과, ①자연증가분은 2005년 약 1,873천명(연기군 제외)에서 2020년에 2,125천명으로 전망되고, ②사회적증가분은 ②-1. 신도시(내포신도시, 태안기업도시, 아산만권 신도시,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의한 인구증가분 107천명과 ②-2. 계획입지 전망수요에 의한 외부 유입인구(144천명)를 합산하여 약 251천명으로 추

4) 내포신도시 60천명(계획인구 100천명에 외부유입률 60% 적용), 아산만권 신도시 17천명(1단계 계획인구 28천명에 한정해 외부유입률 60% 적용), 태안기업도시 5천명(계획인구 15천명에 외부유입률 35% 적용), 황해경제자유구역 25천명(송악지구 35천명, 인주지구 7천명, 지곡지구 해제로 경제자유구역의 총 계획인구 42천명에 외부유입률 60% 적용) 등 신도시 개발에 따른 유발인구는 107천명으로 산정

5) 충청남도 산업입지 중장기기본계획(2006)에 의하면, 2020년까지 산업단지 조성규모를 49.94km²로 제시

6) 고용인구는 계획입지 규모(49.94km²)를 기준으로 산업입지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건교부·산자부·한국토지공사, 1998)에서 제시된 종사자당 부지면적 원단위 전망에서 제조업 평균치인 182.3m²/인을 적용하여 273,944명으로 추계

7) 유발인구는 고용인구(273,944명)에 2009년 현재 기혼률 66.0%를 적용하고, 통계청이 예측한 2020년 충청남도 가구당 인구수 2.51인을 반영하면 453,815명으로 추계

8) 외부유입인구는 유발인구(453,815명)에 외부유입률(외지인비율 39.8%)을 반영하여 180,618명으로 산정. 즉, 충남넷 산업입지정보(2011년 6월 20일 기준)에서 충청남도 내 산업단지 기업에 종사하는 외지인 비율은 39.8%로 조사되어 있어 이를 외부유입률로 반영. 참고로 2007년 고용보험통계연보 상 지역간 경력직 노동력 이동현황에서는 충청남도 외부유입률을 41.8%로 상대적으로 높게 제시

9) 신도시개발과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유발인구 간 중복산정을 배제하기 위해 2011년 현재 충청남도 산업단지의 고용인구 중에서 사회적 증가분에 반영된 신도시 개발지역이 위치한 시·군(아산, 당진, 홍성, 예산)에 종사하는 고용인구의 비율인 20.4%(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에 고용된 인구를 기준)를 적용하여 외부 유입인구(143,772명)를 산정. 이러한 외부 유입인구는 인구추정 시나리오에서는 백명 단위로 반올림하여 144,000명으로 적용

계됨

- 따라서, 안정성장 시나리오에 의한 목표연도의 계획인구는 약 2,400천 명으로 설정할 수 있음

■ 최저성장 시나리오: 1,959천명(2010년) → 2,130천명(2020년)

- 최저성장치는 과거 인구변화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미래 인구를 추정한 값이며, 다양한 모형으로 추정이 가능하나 7개 추세연장법¹⁰⁾ 중 모형적합도가 높은 추정방법의 산출평균치를 적용하였음

〈표 1-24〉 충남인구 인구지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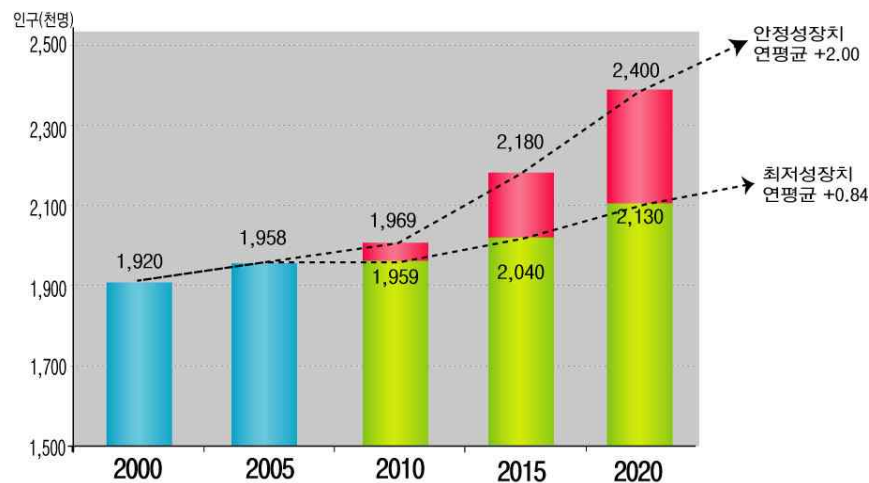
(단위: 천명, %)

구 분			2010년	2015년	2020년	연평균증가율	
						'10~'20	'15~'20
전국인구 ¹⁾			48,875	49,277	49,326	0.09	0.02
충남	목표 인구	안정치	1,969	2,180	2,400	2.00	1.94
		최저치 ²⁾	1,959	2,040	2,130	0.84	0.87

주1: 전국인구는 통계청의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결과(2007.5)」에 제시된 수치이고, 사회적 인구인 전·출입 인구를 반영한 수치

주2: 모형에 의한 추정방법(7개 추세연장법)에 의한 추계치

〈그림 1-38〉 충남인구 인구지표 전망



- 충남의 노령화율은 2010년 현재 14.8%에서 2020년에는 19.2%로 높

10) 7개 추세연장법에 대하여 함수들과 시계열기간에 대하여 적합도 검증(평균절대오차법 활용)을 실시한 결과, 모형 적합도가 비교적 높은 추정방법(MAPE 1 미만)은 지수함수법, 최소자승법, 콤퍼츠법으로 나타남. 추세연장법에 의한 목표연도 계획인구는 가장 신뢰도가 높은 상위 3개의 함수식에 의한 추계치를 산출평균하여 2,126,120명으로 산정됨

아저 전국의 노령화율(15.6%)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충남의 노령화율은 향후 5년동안 2010년 14.8%에서 2015년 17.8%로 3.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표 10〉 연도별 노령화율 전망

구 분	단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5년	2020년
노령화율	%	13.2	13.5	14.0	14.4	14.6	14.8	17.8	19.2

나. 지역경제 전망

■ 지역내총생산(GRDP) 추이

- 충청남도의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은 2005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1995년 22조 596십억원에서 2009년 67조 055십억원으로, 이 기간 연평균 8.1씩 성장하였음
- 충청남도의 지역내총생산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 3.9%에서 2009년 9.0%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 기간 충청남도의 연평균 지역경제 성장률은 전국 평균 경제성장률 4.0%에 비해 배 이상 높은 수준임
- 특히 여기서 주목할 점은 충청남도의 경제성장률은 전국평균과 다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임

〈표 1-26〉 지역내총생산(GRDP) 변화(2005년 불변가격)

(단위: 십억원, %)

구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09년		연평균 성장률 ('95~'09)
		GRDP	연평균 성장률 ('95~'00)	GRDP	연평균 성장률 ('00~'05)	GRDP	연평균 성장률 ('05~'09)	
충청남도 (구성비)	22,596 (3.9)	30,963 (4.5)	6.5%	47,497 (5.5)	8.9%	67,055 (6.7)	9.0%	8.1%
전국 (구성비)	573,504 (100.0)	691,468 (100.0)	3.8%	869,305 (100.0)	4.7%	999,311 (100.0)	3.5%	4.0%

자료: 통계청 (<http://kosis.nso.go.kr/>).

■ 1인당 GRDP 추이

- 앞에서 제시된 지역내총생산과 인구규모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지역의 1인당 GRDP 변화는 다음과 같음
- 충청남도의 1인당 GRDP는 2005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1995년 12,179천원에서 2009년 현재 32,312천원으로 이 기간 연평균 7.2%씩 증가하였음
 - 이와 같은 충청남도의 1인당 GRDP 성장은 같은 기간 전국 평균 1인당 GRDP의 연평균 성장률 3.3%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높은 것임
 - 이러한 추세에 따라 충청남도의 1인당 GRDP와 전국평균 1인당 GRDP 성장률의 격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대되고 있음
 - 구체적으로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국 평균 1인당 GRDP에 대한 충청남도 1인당 GRDP의 비'는 2000년 1.113, 그리고 2005년 1.358, 2009년 1.63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표 1-27〉 1인당 지역내총생산 변화추이(2005년 불변가격)

(단위: 만원, %)

구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09년		연평균 성장률 (95~09)
		1인당 GRDP	연평균 성장률 (95~00)	1인당 GRDP	연평균 성장률 (93~98)	1인당 GRDP	연평균 성장률 (05~09)	
충청남도(A)	1,218	1,604	5.7%	2,396	8.4%	3,231	7.8%	7.2%
전국(B)	1,247	1,441	2.9%	1,764	4.1%	1,973	2.8%	3.3%
A/B	0.976	1.113	-	1.358	-	1.638	-	-

자료: 통계청 (<http://kosis.nso.go.kr>).

■ 지역내총생산 전망

- 신고전적 지역성장(Neoclassical Regional Economic Growth)¹¹⁾ 모형을 이용하여 예측한 지역별 지역내총생산 변화는 아래 표와 같음
- 충청남도의 지역내총생산 규모는 2005년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2009년 67조 055십억원에서 목표년도인 2020년에는 125조 787십억원으로 연평균 5.9%씩 성장이 예측됨

11) 신고전적 지역성장 이론은 지역의 경제성장을 지역내 생산성과 자본 및 노동 등 지역내 생산요소의 성장과 축적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여기서는 주로 지역간 노동 등의 생산요소 이동을 바탕으로 지역의 경제 및 인구 규모가 예측되며, 이를 토대로 지역의 일인당 소득수준의 변화가 추정됨

- 반면, 충남을 제외한 기타 지역의 지역내총생산 및 전국의 국내총생산의 연평균 성장률은 같은 기간 각각 4.5%와 4.6%로 충남의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예측됨
-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충청남도과 기타 지역의 성장률 격차가 <표 I-26>에 비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적용된 예측수단인 신고전적 지역성장 이론의 특성에 기인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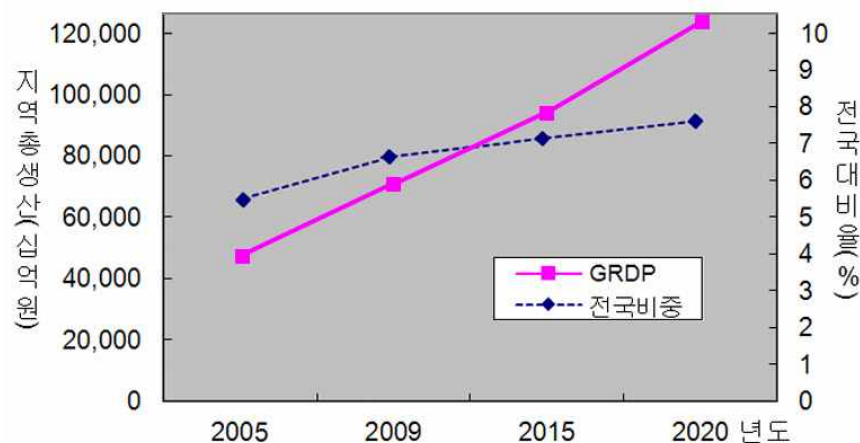
〈표 I-28〉 지역별 지역내총생산 변화 예측(2005년 불변가격)

(단위: 십억원, %)

구분		2009년		2015년		2020년		연평균 성장률 (’09~’20)
		GRDP	비율	GRDP	비율	GRDP	비율	
GRDP	충청남도	67,055	6.7%	94,558	7.3%	125,787	7.7%	5.9%
	기타지역	932,257	93.3%	1,196,773	92.7%	1,506,022	92.3%	4.5%
	전국	999,311	100.0%	1,291,333	100.0%	1,631,809	100.0%	4.6%

자료: 통계청 (<http://kosis.nso.go.kr>).

〈그림 I-39〉 충청남도의 지역내총생산액 및 전국비중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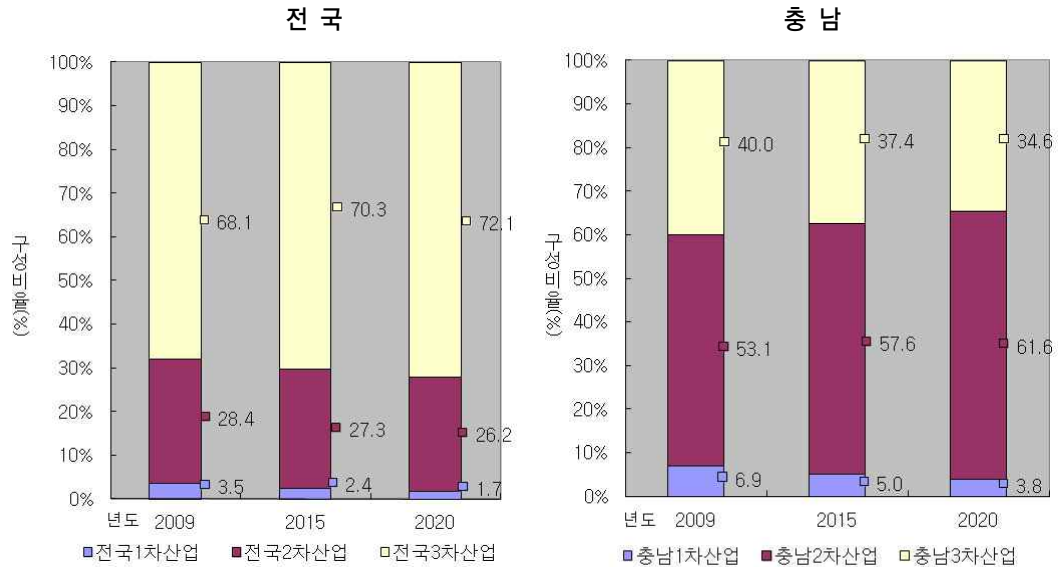


■ 지역산업구조

- 생산액 기준 충청남도의 산업구조는, 1차산업은 2009년에는 6.9%, 2020년에는 3.8%로 감소하고, 3차산업 역시 2009년 40.0%에서 2020년에는 34.6%로 줄어드는 반면, 2차산업은 2009년 53.1%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20년에는 61.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이는 충청남도 지역경제가 지금까지 추세에 따라 제조업 중심의 고속

성장이 이루어질 것임을 가리키는 것임

〈그림 1-40〉 산업구조 전망



다. 주요 사회지표 전망

■ 도시화

- 2020년까지 세종시, 내포신도시 건설 등에 따라 2,400천명으로 증가한 충남 인구 대부분이 도시지역으로 흡수됨에 따라 도시인구는 증가할 것이나, 전국의 도시화율 보다는 다소 낮을 것임

■ 사회간접시설

- 자동차 보유대수는 연평균 4.4%씩 증가하여 2009년의 796.9천대에서 2020년에는 1,149.9천대로 증가할 것임
- 고속도로와 국도는 2020년까지 꾸준히 확충되어 2009년 대비 각각 1.7배와 1.2배로 증가하고, 철도 연장은 2.7배, 항만 시설능력은 1.6배로 확충되어 국제적 교역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임

■ 주택

- 2020년까지 주택보급률은 112%로 제고되고, 인구 1,000명당 주택수는 450호 이상으로 확보될 것임

■ 사회복지시설

- 아동복지시설은 아동복지법 시설 기준과 국제화·정보화·문화화 추세 반영, 아동인구 및 사회복지 수요증대 등을 고려하여 23개소로 계획
-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시설 기준으로 생활수준 향상과 평균수명 연장 등에 따른 노인복지수요 급증을 고려하여 350개소로 설정
- 장애인 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향후 장애인 증가 추이, 사회복지 수준,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2020년까지 총 30개소 확충을 계획

■ 보건·의료

- 목표연도에는 병상률(인구 10만인당 병상수) 1200개소, 의사율(인구 10만인당 의사수) 288인으로 설정하여 의료시설 및 의료인력 확충계획을 수립

■ 생활환경

- 상수도보급률은 충청남도 계획인구 대비 급수인구를 고려하여 상수도 보급률을 전망하되, 장래인구와 정부 및 충청남도의 정책의지를 고려하여 2020년의 상수도 보급률 목표를 90%로 계획함
- 충남도 하수도보급률은 연도별 충청남도 계획인구 대비 하수처리인구를 고려하고, 광역자치단체의 하수처리인구율을 비교하여 목표연도에는 하수처리인구율 85%로 계획함

〈표 1-29〉 2020년의 주요 사회지표 전망

구 분		단 위	충 남			전 국
			2009년	2015년	2020년	2020년
인 구	총 인 구 ¹⁾	천명	2,075 ²⁾	2,200 ³⁾	2,400 ³⁾	49,956
	노령화율 ¹⁾	%	14.8 ²⁾	17.8	19.2	15.6
지역 경제	지역총생산 (2005년 불변가격 기준)	십억원	67,055	94,558	125,787	1,631,809
	산업구조(1차:2차:3차)	%	6.9:53.1:40.0	5.0:57.6:37.4	3.8:61.6:34.6	1.7:26.2:72.1
	1인당 GRDP	천원	32,312	43,375	52,411	33,082
사회 간접 시설	자동차 대수	천대	796.9	989.2	1,149.9	20,327
	도로	고속도로	km	449	575	721
		일반국도	km	1,321	1,476	1,630
	철도	연장	km	268	268	717
	항만 ⁴⁾	시설능력	천RT/년	104,295 ⁵⁾	133,972	163,648
주택	주택보급률	%	113	112	112	-
	인구 1,000명당 주택수	호	391	430	450	370
사회 복지 시설 ⁶⁾	아동복지시설	개소	18	20	23	328
	노인복지시설	개소	172	250	350	5,500
	장애인복지시설	개소	22	24	30	600
보건 의료	(10만인당) 의사수	인	159	200	288	326
	(10만인당) 병상수	개소	1,058	1,100	1,200	870
생활 환경	상수도보급률	%	77.7 ⁷⁾	85	90	97 ⁸⁾
	하수처리인구율 ⁹⁾	%	63.5	77	85	90
	폐기물발생량	kg/인·일	0.89	0.92	0.95	1.00

주1: 통계청의 「시도별 장애인구 특별추계 결과(2007.5)」에 제시된 수치

2: 충청남도, 「2010년 충남통계연보」, 2011.

3: 세종시출범(2011.7)에 따른 연기군(세종시) 인구 제외

4: 항만지표중 평택·당진항은 경기도지역을 포함한 하역능력임,
제3차전국항만기본계획(2011-2020), 국토해양부

5: 2010년 기준

6: 사회복지시설 중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부랑인시설은 제외

7: 2008년 기준

8: 농어촌지역은 85% 수준으로 향상

9: 하수처리인구÷총인구×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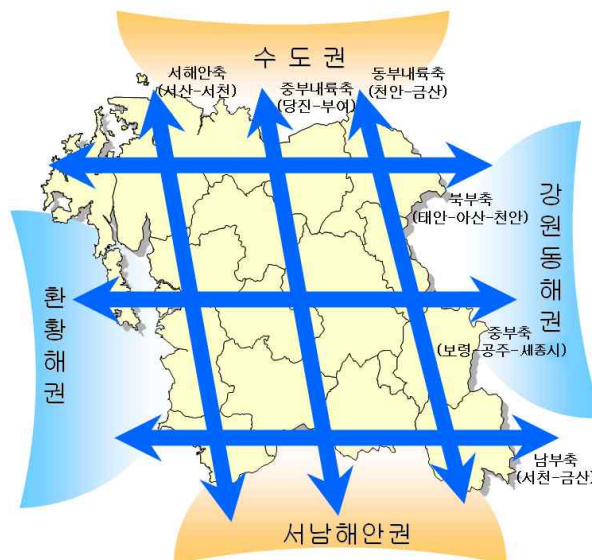
4. 공간구조의 설정

가. 국내외 교류·협력을 위한 개방형 지역발전축 구축

■ 발전축의 설정

- 지역발전축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세계와 교류하는 개방형 국토축 형성 및 광역연계형 녹색국토 형성’ 전략을 근간으로 하고,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2008~2020)」의 “田” 자형 개발축 설정 내용을 수용
- 충남지역 외부로부터의 발전 과급효과를 효과적으로 받아들이고, 권역별 특성과 자원 잠재력 활용을 극대화 하며, 환황해경제권의 중심적 역할 강화 및 충청광역경제권의 통합성 증진을 위한 발전축을 설정
 - 대외적으로는 중국, 유럽대륙, 동남아시아와 연계될 수 있는 교류축 구상
 - 대내적으로는 경기도 및 충청북도, 전라북도와의 연결축 구축으로 지역간 연계·제휴를 도모
 - 충청광역경제권의 통합적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동서축의 조기 구축을 도모하며, 이를 위해 권역내 사·도간 광역적 연계·협력을 촉진
- 충청남도 내부적으로는 지역간 균형발전과 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거점간 연계망을 구축하고 발전축별 특화기능을 부여

〈그림 1-41〉 충청남도의 발전축



■ 발전축별 개발방향

- 동서2축과 남북2축을 설정하여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개발형 녹색국토축’ 전략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주변 광역시·도와의 연계성 제고 및 도내 지역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하여 “⊥”형의 2축을 추가
- 내륙의 성장거점권과 연안의 항만·임해산업지대 및 중추행정거점(세종시-내포신도시)간 연계성 제고를 위해 당진-대전고속도로에 의해 연결되는 남동~북서1축, 서천-공주간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남서~북동1축의 “>”형 보조발전축을 설정
- 발전축별로 특화기능에 따라 지역별 전략산업 및 특화산업을 육성
 - － 북부축은 국제교류첨단산업복합지대로, 중부축은 문화관광·물류산업연계지대로, 남부축은 친환경·바이오·복합생태산업·관광지대로, 서해안축은 해양관광·국제교역지대로, 중부내륙축은 역사문화첨단농축산업지대로, 동부내륙축은 중추행정·R&D중심지대로 육성

〈표 1-30〉 발전축별 연계지역과 개발방향

구 분	축별 연계지역	개 발 방 향
북 부 축	태안-천안 (태안-서산-당진-아산-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륙 및 임해형 첨단산업 복합지대 • 국제교류의 게이트웨이 및 서해안 개발의 거점
중 부 축	세종시-보령 (세종시-공주-청양-보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해안과 중부내륙 연계 문화·관광·물류지대 • 해양과 내륙의 물류·산업·행정 연계
남 부 축	서천-대전 (서천-부여-논산-금산-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산업·바이오산업지대 • 복합적 생태연구·학습·산업 거점, 신녹색성장산업 지대, 역사·문화·농촌관광 복합지대
서해안축	서산-서천 (서산-홍성-보령-서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교역·교류 거점, 해양관광·해양산업지대 • 연안개발·관리 및 산업구조 고도화지역
중부내륙축	당진-부여 (당진-예산-청양-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문화·관광, 농산업 중심지대 • 첨단농축산업 연구·생산 및 그린투어리즘지대
동부내륙축	천안-금산 (천안-세종시-대전-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추행정, 국제과학비즈니스거점, 복합첨단산업, 내륙교통·물류지대 • 중부내륙의 행정·산업·R&D·물류·교통중심축

나. 상생적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경영권 구상

1) 개발경영권의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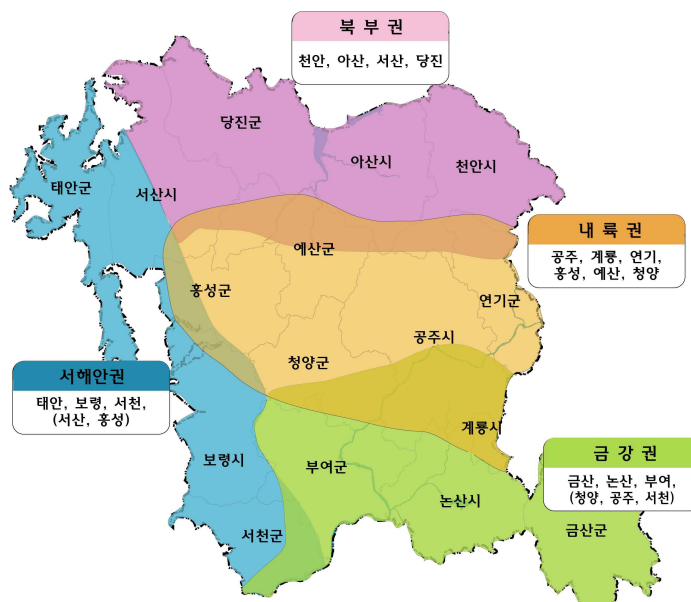
- 지리적 여건과 산업·환경·자원을 바탕으로 지역간 연계개발에 의한 지역 개발경영의 효율화를 위한 4대 개발경영권을 설정
- 본 재수정계획에서의 개발경영권은 기존 개발경영권의 설정·운영 원칙을 수용하되, 세종시와 내포신도시 개발에 따른 시·군간 광역적 연계체계의 재편 필요성을 반영하여 내륙권(중앙과 지방의 중추행정도시 연계권)을 설정
- 권역별 기능특화 및 광역적 연계·협력 개발을 통하여 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광범위하게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전략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며, 권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개발을 추진

〈표 1-31〉 4대 개발경영권 설정

권역별	대상지역
북부권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서해안권	태안, 보령, 서천, (서산, 홍성)
내륙권	공주, 계룡, 연기, 홍성, 예산, 청양
금강권	금산, 논산, 부여, (청양, 공주, 서천)

주 : () 안은 행정구역의 일부가 포함됨을 의미

〈그림 1-42〉 4대 개발경영권의 구분



2) 권역별 발전방향

■ 북부권 : 환황해경제권의 생산·교역거점, 광역도시권의 성장관리

- 국내외적 교류·교역의 거점으로서 항만·철도망·도로망의 입체적 구축과 물류·유통 거점기능을 확충하여 지역산업과 연계
- 내륙지역은 정보·기술집약적 첨단산업, 연안지역은 임해산업을 중심으로 배치하되, 산업단지간·지역간 산업협력 네트워크를 고도화 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대덕R&D특구 등과의 기능적 연계를 강화
 - 황해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통하여 환황해권시대 성장을 견인하는 국제적 교류·교역거점지역으로 성장 유도
 - 아산만권 주변으로 전자정보기기, 자동차, 정밀화학, 바이오, 철강 등 전략산업의 생산 및 R&D 기능 중심의 첨단산업 집적지를 조성하는 한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를 활성화
- 도시간 및 도시와 산업단지간 연계·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담도시권의 성장관리와 도시재생을 선도적으로 추진

■ 서해안권 : 환황해권 교역 전진기지, 해양휴양·관광의 메카

- 거점항만 및 항공물류기지 확충으로 국제적 교역·교류의 거점으로 특화 육성
- 항만 배후지 및 서해안고속도로 IC 연접부를 중심으로 신산업집적지·물류유통거점 등을 조성하여 무역항 및 황해경제자유구역과 연계
- 우리나라 서해안 해양관광벨트의 중핵기능을 담당하고, 통합적 연안환경 관리, 풍부한 어족자원 육성, 미래형 해양산업의 거점지대로 개발
 - 태안관광레저 기업도시를 국제적 관광지 수준의 종합레저·스포츠시설을 갖춘 가족휴양지로 개발하여 서해안 레저관광활동 중심지역으로 육성

■ 내륙권 : 국가·지방 중추행정 연계축, 지역균형발전 촉진지대

- 충남의 중서부지역에 인구 10만의 다기능 내포신도시를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성장거점을 형성하여 주변지역과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충청도내 지역간 지역균형발전을 촉진
- 내포신도시와 세종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및 대덕R&D특구를 긴밀히 연계하면서 관련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국가·지방 중추행

정 연계축을 구축

- 백제문화권과 내포문화권을 연계하여 역사·문화·녹색관광 벨트 구축

■ 금강권 : 역사·문화관광, 생명·정보산업, 도농복합생활공간 형성지대

- 금강의 수자원, 역사·문화자원, 경관·환경자원, 토지자원, 다양한 농촌 어메니티자원 등을 활용하여 복합적인 녹색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충남 남부지역의 발전을 견인
 - 지역의 자원과 잠재력, 개발수요를 연계하여 지역발전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하고, 금강권역을 특성화·브랜드화
 - 자연생태환경과 역사문화가 어우러진 관광명소의 발굴·육성 및 테마형 광역관광벨트 구축
- 중부권의 물류·유통 거점 육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대덕R&D특구와 연계한 첨단생명산업 및 정보산업 육성, 근교·관광농업 활성화와 다양한 형태의 도시근교형 전원주거지 개발, 수자원·관광개발 및 도시근교형 산림·수변생태공원 조성

다. 협력과 제휴의 지역생활권 형성

■ 지역생활권의 설정

- 지역생활권은 네트워크형 도시체계의 형성을 전제로 하되, 세종시와 내포신도시를 중요한 거점으로 고려
- 지역생활권은 기존 생활권체계, 생활권 내부의 지역간 기능적 연계성 및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확보, 지역생활권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6개로 구분함
 - 북부내륙권은 천안·아산 연담도시권 전체의 조화로운 성장을 위해 도시 기능을 적절히 분담시키면서 해당 도시들의 연계성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동일생활권으로 구분
 - 서해안권은 남북으로 길게 펼쳐져 있는 지형적 특성과 기존 시·군지역들의 사회·경제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2개의 광역적 지역생활권(북부해안권, 서남부권)으로 구분
 - 특히, 중부권(홍성, 청양, 예산)과 세종시근교권(공주, 연기)은 각각 내포신도시와 세종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도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하나의 생활권으로 구분

- 대전근교권은 대전 대도시권과 논산을 중심으로 계룡, 금산의 기존 중심지들이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 도시들과의 기능분담 및 연계성을 강화하되, 충남지역의 도시기능이 대전광역시에 일방적으로 흡수되지 않도록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일 생활권으로 구분

■ 지역생활권 내·외의 도시간, 도·농간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광역중심지는 권역내 생활수요를 충분히 만족시키기 위해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광역중심지와 배후지역간 교통·정보통신 연계를 강화하여 네트워크형 도시체계를 구축
- 시·군중심지 및 기초중심지는 도시환경 개선을 통한 전원도시화를 추진하되, 지역실정에 맞도록 농촌중심형·대도시주변형·특수기능형으로 발전전략을 차별적으로 적용
- 지역생활권에 포함된 시·군간 광역시설의 합리적 배치와 공동이용체계 구축으로 운영 효율성을 제고

〈표 1-32〉 지역생활권 및 중심지체계

지역생활권	중심지체계			대상지역
	광역중심지	시군중심지	기초중심지	
북부내륙권	천안(아산신도시)	아산	성환, 성거, 인주	천안, 아산
북부해안권	서산	당진, 태안	대산, 합덕, 안면	서산, 당진, 태안
서남부권	보령	부여, 서천	웅천, 장항	보령, 부여, 서천
중부권	내포신도시	홍성, 예산, 청양	광천, 삽교	홍성, 청양, 예산
세종시 근교권	공주(세종시)	조치원(세종시)	유구	공주, 연기
대전논산 근교권	논산(대전)	계룡, 금산	강경, 연무, 추부	논산, 계룡, 금산

〈그림 1-43〉 지역생활권과 중심지 계층

